朝鮮日報 夕刊

社說

最近中國의 對日態度

蔣汪의 二重性과 動搖性

一

今日外電에 依하면 日前부터 南下說을 傳하든 北平政整委員長 黃郛氏는 蔣介石氏를 맛나기 爲하야 漢口로 出發하얏다 고한다. 單純한 中國의 一要人의 往來로써 보면 黃郛氏의 南下는 問題될 바이 못되지마는, 今回의 黃郛氏의 南下는 華北에 在한 日中懸案의 解決과 日中關係의 全面的 調整에 잇서서 日本側과 折衝한 結果를 蔣介石氏에게 披瀝하야 日中關係의 劃時期的 轉換을 企圖할 것으로써 期待되어 잇는 만큼, 그 南下에 따라 國民政府內에 在하야 黃郛氏와 함께 對日妥協派로 指稱되는 汪精衛氏 張群氏 等의 協作 또 이에 따르는 歐米派 孫科 宋文幹 顧惠慶 等의 態度 如何, 特히 南昌行營에서 黃郛를 맛나기 爲하야 南京으로 오리라는 蔣介石氏의 態度 等은, 廣田氏와 汪氏의 交換에 依한 新日本關係發生의 兆徵, 또, 聯盟의 中國에 對한 技術的 援助에 對한 責任을 지고 渡中하야 近 一年을 滯在하다가 큰 成果 업시 撤退하는 라이히만 博士, 숄터氏 等의 歸歐와 또 最近 五千萬弗의 米麥借款이 二千萬弗으로 減額되야 米國의 借款이 또한 中國의 經濟的 發展에 對하야 큰 寄與를 하지 못하게된 事實 等의 狀勢의 變化와 아울러 日中關係의 新轉機를 지을 것으로써 許慣될 것은 當然하다 할 것이다.

二

以上의 資料는 九一八事件 以來 所謂 一面抵抗, 一面交涉이라는 汪精衛氏의 奇怪한 論理그대로, 錦州에서 上海에서, 熱河流域에서 抵抗해 보기도 하고 抵抗할 듯도 하면서, 結局은 上海에서 塘沽에서 服從하는 듯이 안 服從하는 듯이, 調印한 翌後, 昨年 廬山會議에서 建設工作의 原則을 세우고 또 蔣介石氏의 有名한 『斷臂保身說』 — 四肢 即 滿洲라든지 其他 邊境을 切斷하더라도 驅幹 곳 中國本部만 잘 保全해 가면서 實力을 養成하야 機會를 보아서는 四肢도 復活할 수 잇다는 主張에 依하야 무엇보다도 國民黨 政權 自體의 存立에 對하야는 列强의 勢力 以上으로 現實上으로 큰 脅威가 되는 共産軍討伐에 全力을 다하기로 決定한 後 外國에서 輸入한 精銳한 爆擊機 其他 精銳한 武器와 六十萬의 大軍을 江西, 福建, 湖南의 剿共戰線에 出陣식혀 蔣氏 自身이 陣頭에서 指揮한지 이미 半年이라는 事實에서 볼 때에는 共軍討伐이 아즉도 圓滿치 못하야 大軍 八十萬으로 第四次 二期討伐計劃을 세우고 新文化運動으로 中國의 事實上의 文化的 經濟的 低劣性을 自認하야 實力養成을 圖謀하려고 할 때에 現下의 事情과 아울러 볼 때에 國民黨 政權의 日本에 對하야 取할 길은 『服從』과 『和協』이 잇슬 따름이라고 推論할 수 잇는 것은 事實이다

三

實際에 잇서, 所謂 「力依賴主義」로서 一貫한 感이 잇는 國民黨 統治群이 國際聯盟에 無力과 他力依賴 用의 幻滅을 感하면서 부터 一面에 讓步하야 一面에 實力을 養成하고 一九三五年 危機가 튼 것을 期待하야 全面的으로 日中問題 解決을 圖한다는 論理로 發展한데 對하야는 一部分 首肯할 點이 잇다고도 할 수 잇고, 國民黨 自身의 權力 維持를 爲하야는, 日本에 服從하야 共軍討伐에 全力을 集中한다는 것은 그 意로서는 當然한 코ー스라 할 것이다

四

그러면 現下 中國의 日本에 對한 態度의 必至의 코ー스는 반다시 『妥協』과 『妥協』의 곳은 길을 걸을 것이냐 하면 그는 그러치 안타. 그러치 안은 兆徵은 主와 가 和協的 態度를 表示하는 過激의 汪精衛의 滿洲國問題에 對한 激烈한 言辭, 蔣介石 一派의 무엇이 뒤에 숨엇지 모르는 沈默한 服從, 國民黨 實權派의 일종으로 形式을 밧귄 排日的 排日貨運動의 依然한 持續 또 日本에 對한 强硬한 態度를 가지고 日米의 接近 傾向까지를 觀察하는 中國 興論 等 特히 注目할 것은 米蘇國交와 日本과의 關係의 推移에 따라 中國의 對日態度는 影響을 밧는 事實이다 이러한 點으로 볼 때에는 親日派로 指目 밧는 汪精衛의 一面抵抗, 一面交涉이라는 奇怪한 論理가 곳 實로 文字대로 歷史의 一系列에 잇서서 作用할 과가 엽지 안흐니 여기에 中國式 外交의 二重性이 잇고, 動搖性이 잇는 것이다

文相後任으로는 松本商相을 轉補?

政友會에서 島田氏入閣할 듯

結局閣僚交替가 될러

【電通東京電話】 鳩山前文相의 後任으로 政府에서는 政友會의 情勢를 考察하고 文相後任을 가지고 考慮하고 잇는 내 結局 文相의 後任을 그대로 政友會로부터 補充하는 때에 對하여는 政友會內의 情勢로 보아 政府에서 希望하는 候補者를 得하기는 至難함으로 閣內의 入替를 行하기로 決定한 模樣이다 그리고 此에 依한 閣內의 入替는 松本商相을 文相으로 돌닌다는 說이 漸次 有力하게 되엿고 商相의 後任은 아마 政友會로부터 島田俊雄氏가 入閣하리라고 觀測된다

政局의 安定으로

專任文相의 補充은 來週로 延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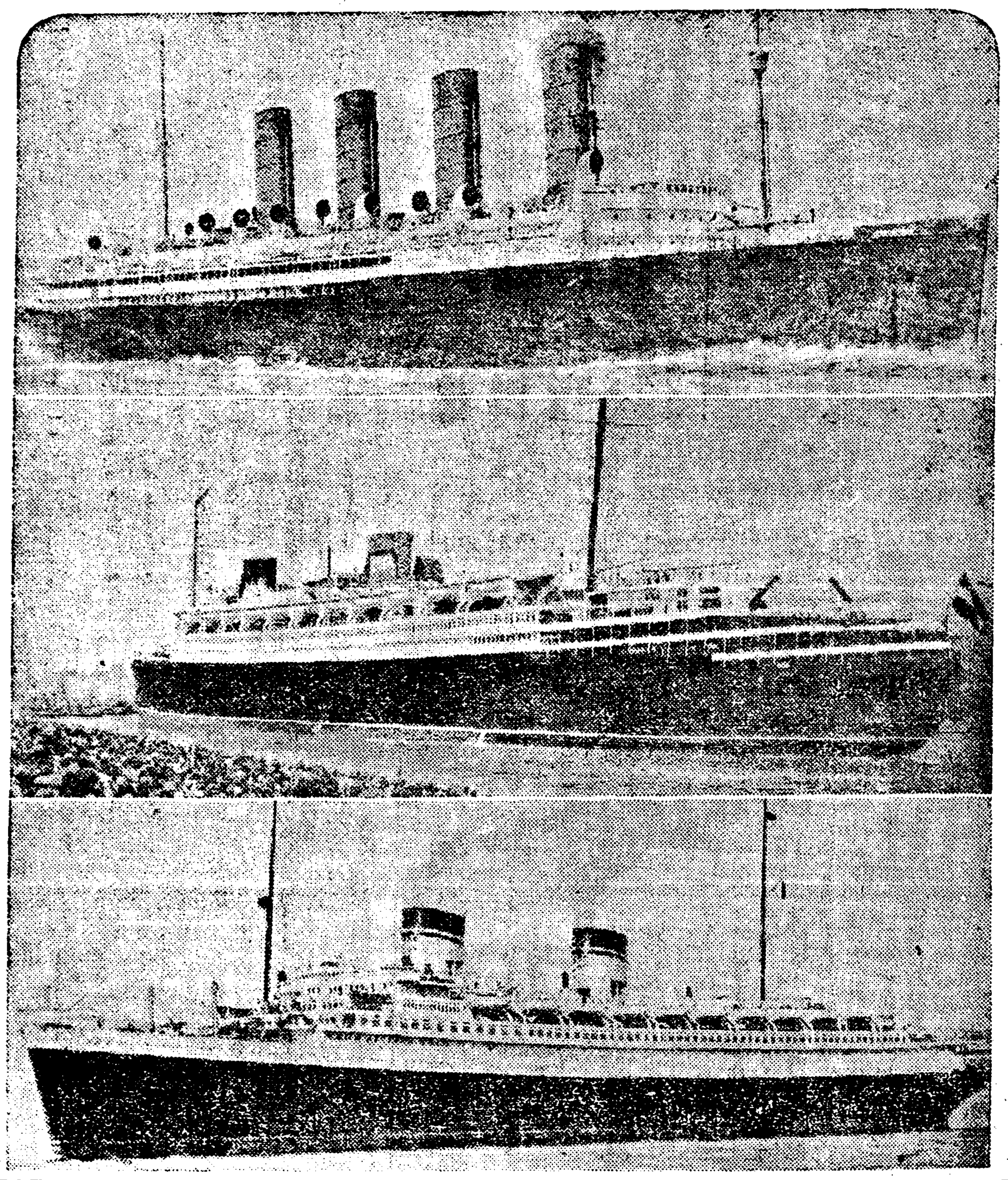
急行할 必要가 업다고

【聯合東京電話】 存續을 決意한 政府는 四、五日中에 專任文相의 後任을 補充하야 政局安定에 一段努力할 豫定이든 바 二日午後 高橋藏相私邸에서 行한 齋藤首相 高橋藏相 山本內相의 閣內三長老가 會議한 結果 文部大臣의 後任補充은 반드시 急히 할 必要가 업고 所謂 政局을 如何히 擔當할가에 對한 根本策을 決定하는 것이 先決問題로 되여 잇슴으로 文相後任의 補充은 大體 來週에 實施되게 되엿다 一般은 後任文相補充이 來週로 延期하게 된 것은 人選難이 아니 首相의 決意가 업기 때문이 아니 風說이 流布되나 政府는 此에 對하야 首相이 政治的 更生을 圖하야 政局을 擔當하여갈 決意를 行하엿슴으로 政局이 安定되엿슴으로 後任文相은 特히 一 指名하야 할 것이냐 又는 閣僚入替를 行하야 空位를 政友會로부터 補充할 것이냐에 對하야 여러

小學校敎員에 勅語下賜

【聯合東京電話】 三日 全國小學校敎員御親閱에 際하야 下賜하옵신 勅語는 左와 如하다

勅語 國民道德을 振作하야 써 國運을 隆昌케 함은 그 淵源이 實로 小學敎育에 잇다 特히 其局에 當하는 者는 夙夜奮勵努力하라



太西洋上의 三王者

太西洋航路에 在한 英、獨、伊의 最大速力兼最巨船競爭은 一九三三年에 이르러 海運의 祖國英國을 물니치고 獨逸을 물니치고 伊太利가 占有하야 맛쇼의 氣勢를 太西洋에 날리고 잇스니 寫眞上이 一九二九年까지 最大速力最大巨船의 記錄을 가지고 잇든 英國汽船 『모레타니아』號(三〇六九六噸)中은 一九二九年에 새로 製作되야 모레타니아號의 記錄을 빼아슨 獨逸汽船 부레멘號 下는 昨年에 새로 伊太利에서 나타나 부레멘號의 記錄을 깨친 太西洋上 第一의 速力과 巨艦을 가진 伊汽船 렉스號(五〇一〇〇噸)니 따라서 이것은 世界第一을 意味하는 것이다

英帝國版圖內限定을 『랑카샤』代表團不肯

日英交涉再開에 無熱意

【電通倫敦三日發】 랑카샤綿業代表團은 日英綿業交涉에 關하야 日本側이 依然 自國製品의 新市場을 英帝國版圖內市場으로 限定하려고 固執하는 日本政府의 意思下에 右交涉은 再開하든지라도 結局 無益하리라는 觀測을 下하야 再開에 對하야도 모지 熱意를 表示치 안는다 랑카샤의 日本品競爭對策研究委員會의 委員은 同問題에 關하야 左와 如히 말하엿다

交涉은 英國貿易에 利益을 與할 可能性이 잇슬 뿐아니라 더욱 日英政治的 關係에 重要한 結果를 齎來하리라고 豫想된다 即 日本은 廣範圍의 通商上 讓步를 行할 意思가 잇다 例하면 資本投下를 意味하는 商品及 便利供與契約 等에 對하야는 將來 全然 競爭을 禁止하고 他方 消費를 目的하는 精製品에 對하야는 强力한 手段으로 競爭制限을 行하려 하는 듯하다 그리고 後者에 關하야는 公正한 市價를 決定하기 爲하야 海軍軍縮會議와 如한 것을 開催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信한다 따라 英國 各方面의 重要人士 一部는 日英通商條約 廢棄는 가마라는 것을 考慮하고 곳 防止하고 잇다

日을 다룰 것은 안이리라고 決定하고 專任文相에 交涉이 게진 것은 決斷코 안이요 이 關係는 全然 相關이 업는 것이라고 言明하엿다 英國政府에서 關하도록 努力하고 잇다 그리고 바야흐로 日英會商에 對하여는 決裂된다나 滿洲에서도 反對치 안는 模樣이다

조훌國王殿下 天皇陛下께 謁見

【電通東京電話】 椰子나무 茂盛한 常夏의 나라 조훌國王이부라힘殿下는 渡日以來 妃殿下를 御同伴하시고 關西方面을 御觀光하시고 二日 歸京하시엿는데 日本皇室에 敬意를 表하시기 爲하야 四日 午前十時 英大使를 御同伴 參內하시와 同大使의 御紹介로 陛下께 謁見하시고 退出하시엿다 그리고 殿下는 妃殿下와 갓치 六日 日光、箱根方面을 御巡覽하신 後 歸國하시기로 豫定이다

『유레네프』蘇大使 日滿關係者招待

三國間의 諒解를 求키爲하야

北鐵交涉進展될機運?

【電通東京電話】 北鐵讓渡交涉은 蘇聯側으로부터 新價格과 條件을 提出한바 此에 對하야 滿洲國側으로부터 드듸여 新對案을 提出하기로 되여 目下 日滿兩國間에서 右對案作成을 急히 하고잇슴으로 同交涉도 一段進展될 機運으로 向하고 잇는데 北鐵交涉을 進捗식히기 爲하야는 特히 蘇滿國境問題 그他 懸案에 對하야 日滿蘇三國間에서 緊密한 諒解를 하여둘 必要가 잇슴으로 駐日蘇聯大使 유레네프氏는 來十八日 午後零時半부터 蘇聯大使館에서 日滿北鐵交涉關係者를 午餐에 招待하고 隔意업시 懇談을 行하기로 되엿다 當日의 出席者는 蘇聯側 유레네프大使, 나이지엔드參事官, 日本側 廣田外相, 重光次官, 天羽情報部長, 東鄕歐米局長, 西歐米第一課長, 滿洲國側 大橋外交部次長, 藤原外交部事務官 等인데 右會合의 效果는 時節이 時節인만큼 注目되여 잇다

(寫眞은 유大使)

英紙所論

日英通商交涉과 交涉再開를 希望

【電通倫敦四日發】 四日파이낸샬타임스紙는 日英通商交涉에 關하야 左와 如한 論說을 揭載하엿다 日本은 如何한 形式으로나 交涉再開를 熱望하고 따라 英國商務省은 차라리 何等 行動을 開始할 수 업는 立場에 잇다

莫斯科海蔘威間 直通有線電信竣工

【電通海蔘威三日發】 蘇聯遞信局은 莫斯科海蔘威間 直通有線電話竣工을 三日 發表하엿다 線의 全長은 九千五百粁로 丁抹의 大北電信會社가 經營하고 잇는 世界的으로 有名한 高速有線電信線을 使用하야 歐蘇極東間의 通信에 스피드업을 期한 것이다

赤坂料理店主、鯉 僞證罪로收容

小山法相아님이判明되어

【電通東京電話】 小山法相을 瀆職事件으로 告發한 岡本一己 代議士의 關係者인 赤坂料理店 鯉住의 女將 鯉는 三日午後三時 東京檢事局에 召喚되여 木內檢事의 取調를 바덧는데 同人의 供述에 依하면 小山法相告發問題는 全然 小山이 안인 것이 明瞭하게 되엿슴으로 僞證嫌疑로 拘引狀을 執行하야 同夜七時 警視廳에 留置하엿는데 一兩日中에 强制處分에 附하야 市谷刑務所에 收容하게 되엿다 同問題가 이와가티 進展되면 以上 岡本氏의 身邊도 危險하게 되엿다

法相齋藤首相訪問

【聯合東京電話】 小山法相은 四日 宮中樞密院本會議에 參列한 後 午前十時四十五分 齋藤首相을 官邸에 訪問하고 今議會의 協贊을 經하야 近日 樞密院에 御諮詢을 奏請할 選擧法中改正案及 自由任用縮小의 勅令實施에 伴하는 諸問題에 對하야 協議를 遂하고 十一時 辭去하엿다

九年度航海補助

補助額比前增額

昭和九年度航海補助命令은 四月一日 發令되엿는데 本命令中 改善事項의 主眼은 時代의 要求인 取引의 緻活을 期하기 爲하야 航海日數의 短縮을 講究한 것과 또 取引의 變遷推移에 依한 船舶의 經濟使用에 努力하야 考慮를 加入한 點이다 即 滿洲物資輸送의 圓滑과 取引의 迅速을 期하기 爲하야 取引地인 京濱、名古屋 及 阪神地方에 對하야 雄基東京線은 從來 二千噸級 一隻 年十四航海를 二千噸及千二百噸 各一隻을 年二十九航海로 增大하고 또 海蔘威、城津、釜山、關門의 諸寄港을 省略하야 一航海의 所要日字를 雄基東京線 四日 釜山浦鹽線은 三日을 短縮하기로 되엿다 또 西朝鮮東京線은 從來 仁川을 起點으로 하엿스나 取引의 實際로 보아 此를 新義州까지 延長하야 新義州大阪線은 西南線에 잇서서 大港多數를 連絡하는 關係로 取引에 多數日字를 要하고 또 船舶利用이 不經濟이엿는데 鑑하야 今回 大體로 仁川以北과 仁川以南으로 分하야 日本內地와 連絡할 수 잇게 하엿다 이때문에 一航海의 所要日字는 新義州、鎭南浦及仁川의 連絡便은 四日間 仁川、群山、木浦及釜山의 連絡便은 三日間 短縮되엿다 그리고 全南北과 日本內地를 連結할 今回 麗水下關線의 命令航路를 新設한바 그他 輸送取引의 實情과 航路適否 等에 鑑하야 여도 適當한 改善을 加하엿다 그리고 補助金은 從來 年額 八十二萬五千圓이든 것을 八十四萬九千圓으로 增額하고 受命者는 新設航路를 川崎汽船에 그他는 從來대로 命令하엿는데 受命者는 左와 如하다

▲朝鮮郵船 淸津敦賀線、北朝鮮東京線、西朝鮮東京線、朝鮮上海線、朝鮮北中國線、朝鮮長崎大連線
▲島谷汽船 朝鮮北海道大連線、新潟北海道線의 淸津外寄港
▲朝鮮汽船 釜山鬱陵島線、木浦濟州島線
▲北九州汽船 釜山博多線
▲鴨綠江運輸 新義州中江鎭線
▲鴨綠江輪船公司 新義州新乫坡鎭線
▲阿波國共同汽船 大連芝罘線의 仁川寄港、大連天津線의 仁川外寄港
▲北陸汽船 伏木浦鹽線의 淸津寄港
▲川崎汽船 麗水下關線

勞働時間問題로 炭坑閉鎖를斷行

米國四萬의坑夫逐失職

【電通華盛頓三日發】 米國炭坑의 中心地인 펜실버니아、일리노이、오크라하마 四州에 勞働時間問題로 紛爭이 이러난바 會社側에서는 鐵炭坑閉鎖를 行하고 잇는데 이미 일리노이州에서는 約四萬名의 坑夫가 職을 失하엿다 事件의 發端은 産業復興局長官 존슨氏가 會社側에 一日 七時間勞働을 直時 實施하라고 命令하엿스나 會社側이 『그리케하면 일을 할 수 업다』고 反對한 것이 原因으로 事態는 憂慮되여 잇다

第六十五議會와 成立된五十法律 (完)

農林省所管

一、臨時米穀移入調節法 問題의 臺灣、朝鮮米의 府縣移入을 調節키 爲하야 昭和十年 三月卅一日까지 買入을 行하기로 한 것이다

一、政府所有米穀特別處理法 米穀事情이 顯著히 供給過剩이기 때문에 米穀의 新規用途를 開拓하야 需用을 增進케 하기 爲하야 政府所有米를 市價에 影響을 及치 안을 程度로 特別處理할 수 잇도록 한 것

一、米穀需給調節特別會計法中改正法律 米穀統制法及臨時米穀移入調節法의 圓滑한 施行을 圖하기 爲하야 現行米穀需給調節資金 七億圓을 八億五千萬圓으로 增額하고 더욱 政府가 米價調節을 爲하야 買入資金을 必要하게 될 境遇에는 三億圓 限度로 增額할 수 잇게 한 것으로 相當한 量의 買上을 豫想한 것이다 即 以上 三法은 外地米의 移入制限을 圖키 爲하야 立案하려 하엿스나 立案치 못하엿슴으로 一個年間의 臨時立法으로 協贊을 經由한 것인데 貴衆兩院이 모도 此法律에 對하여는 速히 根本對策을 樹立하야 臨時議會를 召集하라는 希望을 附하야 잇슴으로 政府는 調査會를 設하야 根本對策을 樹立하게 되엿다

商工省所管

一、農業倉庫業法中改正法律
一、農會法中改正法律
一、原蠶種管理法
一、輸出生絲檢査統制法
一、輸出水産物取締法
一、製鐵所特別會計法廢止法律
一、鑛業法中改正法律
一、石油業法
一、輸出組合法中改正法律
一、商標法中改正法律
一、不正競爭防止法

鐵道省所管

一、鐵道敷設法中改正法律
一、秋田鐵道株式會社所屬鐵道 外三鐵道買收키 爲하야 公債發行에 關한 法律
一、播丹鐵道株式會社所屬鐵道 經營廢止에 對한 法律

朝鮮總督府所管

一、朝鮮事業公債法中改正法律 事業公債 二百五十萬圓을 增發할 수 잇도록 改正한 것
一、朝鮮私設鐵道補助法中改正法律 朝鮮의 私設鐵道는 아즉 獨立自營할 수 업는 狀勢에 잇슴으로 補助金을 交付하는 年限을 延長한 것

臺灣總督府所管

一、臺灣事業公債法中改正法律
一、臺灣私設鐵道補助法中改正法律

議員提出法律

一、金錢債務臨時調停法中改正法律 此法律은 農家의 債務者를 救濟할 必要가 잇다는 것으로 昭和七年 夏議會에서 되엿고 同年十月一日부터 三年間 臨時法으로 하고 實施되엿든 것을 今回 永久法으로 더욱 昭和七年七月三十一日 以前의 債務에는 及하지 안엇든 것을 此制限도 取入한 것으로 小額債務者는 此法이 廢止되지 안는 限 此調停을 受할 수 잇게 된 小額債務者救濟法이다.

一、所得稅法中改正法律 此는 法人所得에 關하야 負擔均衡上 不備하다 하야 改正한 것이다.

夕刊後의市況

至誠實行 共存共榮

第七回大決算終了

我社는 創業以來四十有五年、至誠實行을 社是로、共存共榮을 標語로 하야、專心保險報國의 大使命에 邁進하야 今日에 至한 바 昭和八年末로서 昭和四年보터 昭和八年에 至하는 第七回大決算期를 終了하얏읍니다. 事業成績이 자못 優秀하야、歐米大會社에 比할지라도 秋毫의 遜色이 업는 內容과 發展力을 具備하게 되얏슴은、오로지 江湖各位의 絶大한 後援과 信任에 因하야 옴에 깁히 感謝의 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最高의 契約高・鞏固無比의 內容

我社保有契約高는 昭和四年以來 六億五千餘萬圓을 增加하야 今日에 잇서서는 十三億六千萬圓에 達하얏고、本邦斯界의 最高峯을 일우엇읍니다. 此에 對한 責任準備金은 三億四百餘萬圓 임으로 그 內容은 가장 堅實하야、昨年과 갓튼 未曾有의 低金利時代에도 平均利回 六分三厘三毛의 好成績을 示하얏고、또한 財産評價에도 不足이 無하고、社業의 基礎는 鞏固無比하옵니다.

潤澤豐富한 加入者配當

巧妙한 事業經營의 結果로 生한、當大決算期 五個年間의 利益의 大部分은 此를 加入者에게 分配할 것인데、普通配當附保險加入者에 對한 增加保險契約 一時拂保險料充當金 二千三百餘萬圓을 비롯하야、每年利益配當附保險加入者에게 對한 配當金及積立金、保險契約追加配當金及 그의 準備金、其他配當金等、合計 二千八百四十餘萬圓에 達하얏읍니다

奉仕의 充實・保險報國

當大決算期中에 잇서서 我社는 保險契約追加配當의 實施、約款의 改正、日本生命濟生會 並 日生病院의 活動과 充實、保險金年金支拂特約의 實施等 諸般에 亘하야 奉仕的 施設의 完備에 努力하엿읍니다. 또한 我社는 五年마다 大決算할 때에는、五個年間의 利益의 大部分을 加入者에게 分配한 殘額으로써 更히 社會公益을 爲하야 社業에 關係잇는 有益한 諸事業에 相當히 寄附金支出을 함으로서 保險報國의 實을 擧하기에 盡力하고 잇읍니다. 第五回大決算 때에도 金二百萬圓을 寄附支出하얏고、今上陛下御成婚記念으로 財團法人 日本生命濟生會를 設立하얏고、更히 第六回大決算 때에도 金二十五萬圓、今回 第七回大決算에 잇서서도 金五十萬圓을 同會에 寄附한 것이 一例올시다.

皇太子殿下御生誕奉祝記念奉仕

昨昭和八年十二月二十三日 旭旦、황송하옵게도 皇太子殿下 御生誕의 御慶事를 奉하와 國家至上의 慶福에 九千萬國民의 感激은 진실로 懇切합니다. 我社는 奉祝의 微衷을 表하기 爲하야 今回 金一百萬圓을 斯業에 關係잇는 國防事業에 對하야 獻金을 하얏고、또 十萬圓을 生命保險研究機關設置基金에 寄附支出을 하얏읍니다. 또 同時에 二月十一日 紀元節以降 本年中의 新規契約에 對하야、優雅典麗한 記念保險證券을 發行하야 이 千載一遇의 光榮을 記念하기로 하엿읍니다. 玆에 大方의 贊同과 利用하시믈 懇切히 仰望하는 바입니다

日本生命保險株式會社

大阪市東區今橋四丁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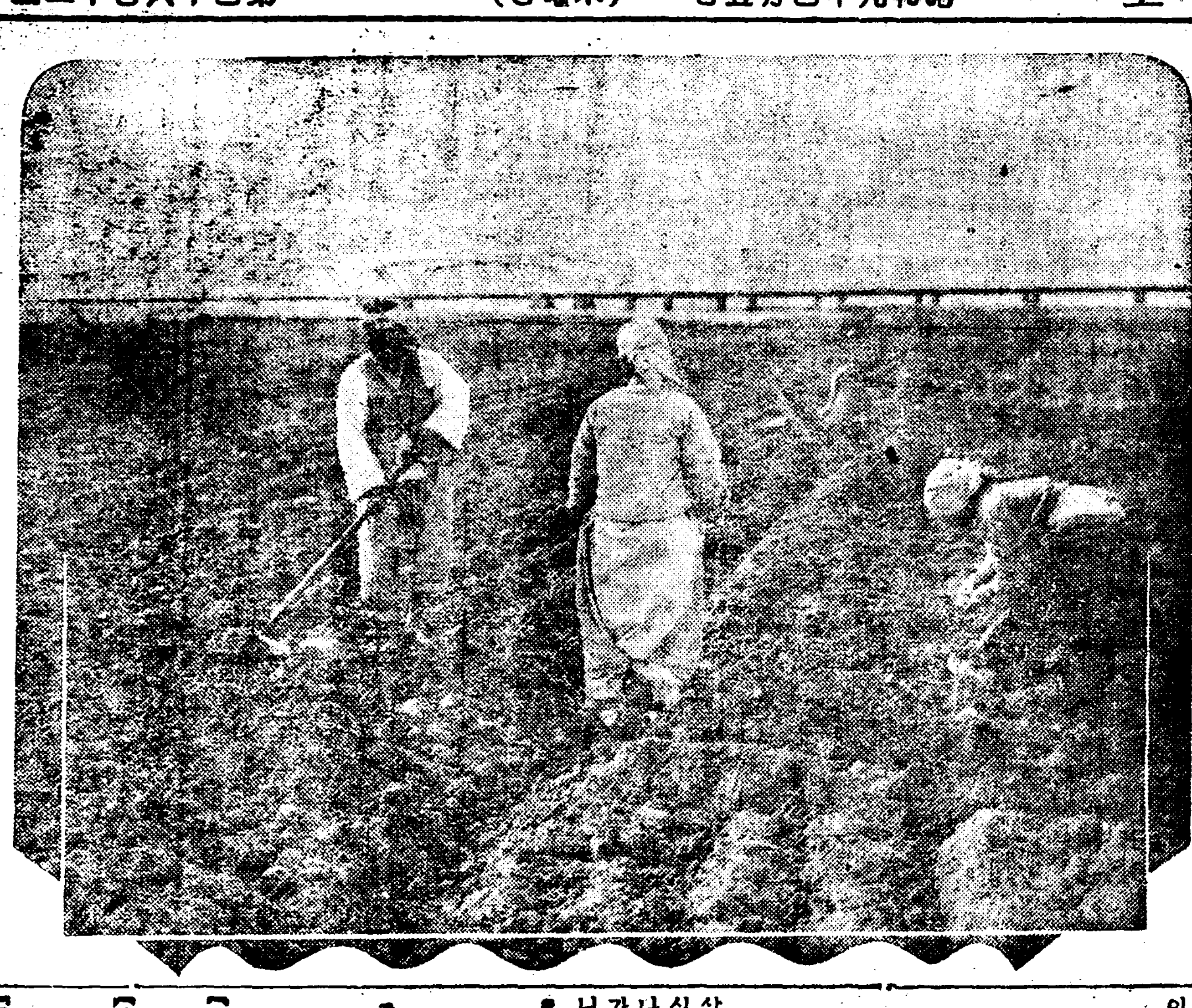
有職戶總數는增加나 唯獨朝鮮人은減少
三千餘戶增加에三千戶反減
京城府職業戶口調査

작년말현재경성부내거주민의직업소유별이 작년말에야 비로소 경성부세무과 징수계에 수집되엇는데 이에의하건대 총직업호수가 칠천사백 구십구호이고 총직업소유자가 삼십삼만팔백구인인바 그중에남자 유직업자는십팔만일천이백 삼십이인이고녀자 직업소유자는 십팔만 이천삼백 육십칠인이고 무직업자가일만 이천이십호에 인구오만일천팔백 팔십이인이고 다시 이것을남녀별로 보면무직업 남자가이만 삼천칠인이고 녀자가 이만팔천팔백칠십오인이다 유직업자의 직업종별로는 공무(公務)와자유업(自由業)자가제일만허남녀총계가십여만일천오백칠십인이고 그다음이상업급 교통업(商業及交通業)으로남녀업자가구만칠천칠십팔인이며제일 적은것이어업(漁業)과 제염업(製鹽業)이어서총계일백사십구인박게아니된다

그중에 조선인은 무직업자의 호수가구천 팔백사십사호에 인구가 사만사천구백륙인이며 녀자가 이만팔천칠 중에남자가 일만구천칠백 십오인이고 직업을가진 사람이 사만사천삼백팔십이호에인구가 십이만 오천구백십사인이며 그중에남자유직업자는십일만삼천 이백십오인이고 녀자는 신일만이천칠백인으로 역시 가장다수를차지한것은 상업과 교통업인데 육만 육천오백륙십사인 이고 그다음은기타유업(其他有業)으로 괴입된 륙마륙천 이랑종으로 괴입된 최소수를 가진것 이 어업과제염업으로 칠십륙인 박게 아니된다 다시이것을 전년도에 비교하면 총수에잇서 유직업자는 삼천칠십팔호가 늘고 인구에잇서 는 오천칠백사십이인이 늘엇스나 그중에조선인측을 따로보면 유직업자가 삼천이백구호나전 년보다 줄엇고직업을 가진자인 구수에서 일만륙천칠백 이십륙인이 줄엇다

入學周旋을稱托 運動費로金品騙取
鄕村에서온父兄을꼬여먹는자를 警察은嚴重處罰方針

각학교의 입학시절이니만치 교육계에대한 일반사회의 주목이 최근에 매우날카롭다 학령아동이 보통학교에 입학하려고하여도 시험이잇고 중등학교는모집자의 오륙배나되는 경쟁자를보게되는등이에대하야 학부형들은 귀여운아들딸을 입학식히려고 흑은관변에 부탁하고혹은학교당국자에게 간곡한 청을하는등 심한것은 두세사람의손을거처 입학에대한 부탁을하고잇는 상태에잇다 그리하야 이러한 입학난의현상을 리용하야 경향간에입학을소개하여준다 주선하여준다하고 그 운동비라는 명목하에금전물품을편취하는자가매우만타하야 드듸어경무국에서는 각도경찰부에엄명하야긔괴와가튼입학생주선의「뿌로-카」의 취체에착수하엿 다한다 특히경긔도 가튼데는 조선의 중앙이니만치 지방으로부터 자제를다리고 오는학부형이 매우만흔터에 「뿌로-카」등은 학무과의모모와 친하다거나 또는총독부에 친한사람이 잇다거나혹은학교선생을 잘아노라거나 교모히꾀여가지고 지방에서 올라온 학부형을속히여가지고 운동비로 얼마가필요하다는등의 수단으로 금전을편취하는자가 발호하고 잇서 이미지나간일이라 도경찰당국에서는 철저히 수사하야 판명되는자는 단연히사법 처분을할터이라한다



◇흙냄새 구수하게 떠올으는 전원 작일교외에서

天道教大會 사일오전에

시내경운동에잇는천도교회에서는사월사일오전십시에동교당내에서제이회 정긔대회를 권동진(權東鎭)씨 사회로 열고집행부 선거가잇슨후 경과보고와 예산결산급긔타중요한안건을결의하고 오후네시에 폐회하얏는데 대회임원은알에와갓다

[officer list illegible]

鬱陵島로보내는同情金 知道公普校

경긔고양군지도면지도공립보통학교(高陽郡知道面知道公立普通學校)에서는교원과학생 일동이금월초사업에울릉도(鬱陵島)로보내달나고 금칠원오십이전을 본보지국에의뢰하여왓다

病院에火災 산구현에서

【聯合宇部電話】 사일오전십일시십오분에 산구현우부시(山口縣宇部市)충산(沖山)에잇는동인병원본관병실에서 불이나서전시내의 소방대를총동식히어 소화에 노력하엿스나 목조건축물임으로 연소를대일수업서 건연소하엿다 이병원은 우부시에서제일큰병원으로 입원환자도만허 환자수용에진력을다하고잇서 매우혼잡한중이라한다

百五十戶燒失 北海道中湧別市街

【札幌電話】 삼일오후칠시경북해도 북견국중용별(北見國中湧別)시가지에 대화가잇서 전시삼백오십호중일백오십호를 타버리고 동구시삼십분에 진화하엿다 화재로우편국이 타버리어 통신이두절되기때문에상세한것은알수업다

當代處女의 約婚解消
新郞집에四柱들고가서 破婚을自主宣言
아버지술천고아들과정한것 相對가될수업다는理由로

부모끼리 정한 혼인 예신 량이정한수입이업다고하야신부가될처녀가신랑집에차저가서손수사주단자(四柱單子)를도루건하고 약혼해소를선언 하엿다는 당대처녀기질을 그대로 말하는 사건이잇섯다 사연을 들으면시내 도렴동(都染洞)×번지 최홍만 (崔洪萬)(假名)과 적선동(積善洞)××번지 양재식 (梁在植)(假名)은 매우친한 술친구인데 지난해정월에 양재식은 엇던주석에서 최홍만에게 향하야자긔의아들성우(成雨)(假名)(三)와최홍만의딸 명순(明順)(假名)(一八)이와혼인을정하자고 혼담을꺼냇다 최홍만은 이미여러번양재식의술을만히어더먹은터이라 그만허락해버렷다 이말을 드른처녀와 그어머니장녀(張姓女)는뜻에업다고하야 여러번신랑의집에 사람을 보내여파혼하려고하엿스나신랑의집에서는 일측이처녀의 아버지에게빗을지운것을큰약점으로잡고 파혼을인정하지안어왓다

그래서 금년봄안으로 례식을 거행할 작정으로 신랑집에서는 준비에 밧벗든터에 며칠전 돌연 처녀는 신랑집에 차저가서 사주단자를 도루천하고 파혼을 선언하고도라왓다 이에 격분한 양재식과 그안해는 최홍만의집에 쪼차가서분푸리로 처녀의어머니 장성녀를따리는등 폭행을하야 필경소관종로서에고소가 되여 놀라운이소문이세상에들추어나게되엿다。

千圓가지고 上海로脫走
벽낙자씨아들

부귀에 잠겨잇는 기쁨후원에도불의오뇌는 기쩟든지 일즉이송병준(宋秉畯)백작의 애첩으로 소문이놉든 시내삼청동(三淸洞)백낙자(白樂子)의막동아들송모(宋某)(一七)는 몃칠전에 돌연모친의 장롱속에든 현금천원을 끄내가지고 어대로 모양을감추어버렷다 그는현재 시내모고등보통학교에 재적하고 잇스면서 귀공자와가티 호화로운화창생활을 하고잇섯는데 전긔소년이 행방불명되엿다는 계출을 바든종로서(鍾路署)에서는각지에 수배하야 그행방을찻고잇던중에 드듸여그는 그돈을가지고 상해(上海)로 멀리떠난것이 판명되여 깜작놀라서 곳그곳령사관경찰에 곳붓자바서 돌려보내도록의뢰하엿다한다

農林博物館은 圓滿解決될듯

다목구차랑(多木粂次郞)씨가농림박물관의 기부를 지령(…)에 반대하야 돌연 기부를취소한다고하야 그런도가비불러되든 농업박물관은 그후총독부와 다목씨간에 여러가지 절충한결과 다목씨도일단긔부한다고하고 이제와서 안한다는것은 자긔의 신용관계도되고 또동지방과 농업박물관의 관련된다는점에서 별개의것으로 반대할리유도 업다하야 다목씨자신이 이이상더 고집을부리지는안을모양이라한다 그럼으로 결국 원만히해결되야 예정대로 농업박물관은설립될것이라한다

行旅死亡第一만코 溺死엔殆半小兒
昨年中京畿道變死者

작년중 경긔도내의 변사자(變死者)에대한 경찰부의 조사에 의하면 변사자의 총수는칠백구십이명인데 그중에는 여자가일백칠십륙명이잇다 대부분이 조선인으로서 칠백사십사명이다 전긔변사자의 원인을 보면로상에서 발병하야 죽은자가가장 만허 삼백구명에달하고 그다음은 잘못하야 본인의부주의로물에빠저 죽은자가 이백삼십사명인데 그중칠할은 어린아히라하며 이외에는치운겨울에어러죽은 동사(凍死)자가오십사명이나 되고 먹을것이업서굴머죽은자가 이십이명이잇는것이 매우주목된다 그중에 동사자와 굴머죽은자의 총수는칠십륙명으로그것은입을옷이업고 잘집도업고 먹을것도업서서참혹한죽엄을하엿다는 것은실로큰사회문제의하나다

醉中에格鬪 畢竟傷害致死

【鏡城】 본적을경성군경성면좌부동(鏡城郡鏡城面左部洞)에둔 김윤방(金允芳)(三三)은 삭주군외남면대관시(朔州郡外南面大館市)모술집에서리모(李某)와한자리에술을먹고 론쟁하다가 싸움이되여 전긔 리모를구타한바 너무중상을넘어 치료중지난 삼십일에 사망하엿다는데 범인은 즉시어느곳으로 도주해버리엿다고한다

三千五百年前 石製船體를發見
埃及피라미드附近서

【亞歷山大利亞二日發】 애급알렉산드리아 이일발 애급에잇는 유명한 「피라미」드 부근에서 돌로만든큰 배몸둥이가 발견되엿다고 한다 이것은 아마도 태양신(太陽神)「라-」를 례원든배를 모형든것으로 이것을 발굴한 애급학자들은 금번 발견은 애급창시이래 처음되는 발견 긔원전십사세긔 「쓰단카멘」왕의 시대의 물건으로 추정한다고한다

現職辯護士 生活苦로自殺

【白川】 황해도연백군은천면 련동리(延白郡銀川面蓮東里)에 사는변호사김긔현(金基賢)(五二)씨는 지난사월이일 오후십일시경에 취침는양을먹고 목을매여 자살하여버렷다 작년부터 사업치못하야 생활난이 극도로심하자세상을비관한까닭이라한다

函館火災 罹災者救濟金募集

千餘의生命이死傷하고 二萬四千戶의住家를 燒失한 이번函館의大火는 十餘萬의罹災民을 내어近來에드믄 慘狀을呈하고잇다 이에對하야 朝鮮社會事業協會와 市內各日刊新聞社가 協議한結果 左記要項에依하야 罹災者救濟義捐金을募集 하기로되얏다

一、義捐은金錢에限함 二、募集期限三月廿五日부터一個月間

三、接受 左記各社及朝鮮社會事業協會

朝鮮中央日報社 東亞日報社 每日申報社
京城日報社 朝鮮新聞社 朝鮮日日新聞社
朝鮮日報社 朝鮮社會事業協會 (以上無順)

現職警官關聯한 金塊密輸團發覺
商民數名、妓生四名에 新義州刑事五名被檢

【新義州支局特電】 지난이일 평북 의주경찰서 (義州署)사법주임이하 다수의 정사복경관이 돌연 신의주에출장하야 부내운정정(雲井町)최병은(崔炳殷)로송정(老松町)김신호(金信鎬)의 두명을 검거하는동시에 신의주경찰서 구경례(具敬禮)백근택(白根澤)형사와 이동경찰아부(阿部)형사、문관헌(文觀顯)형사、또 보안과형사、장익위(張益位)등、오명도 검거하고 계속하야 사원아흠 신의주기생장산호주 (張珊瑚珠)박춘심 (朴春深) 김금향 (金錦香) 김금란 (金錦蘭)등 사명도 검거되여목하엄중히 취조를 밧는중인데그 내용은 작년이래로 만주방면에 다액의 금괴(金塊)밀수출을 한것이 발각된때문이라한다 그러고사건은 아직도어느 정도까지나 더확대될런지 예측할수업다

北靑職業校開校

함경남도 북청군북청읍북리(北靑郡北靑邑北里)에 수업년한이개년의 북청공립직업학교(職業學校)를설립하게되여 사월신학긔부터 개교가인가 되엇다한다

開豐、德岩에强盜
一夜에四處를襲擊

【開城支局電話】 개풍군청교면덕암리(開豐郡靑郊面德岩里)에는 한동리에 하로밤동안 네군데나 강도가드러 왼동리가뒤법석한 근래에못볼괴변이 잇섯다 이일오전령시경에 전긔 덕암리구백이십오번지홍재봉(洪在鳳)의집에 복면한 강도한명이드러와 그집주인을협박하고 현금 이원삼십삼전을 강탈잠적한후 얼마안되여 령시이십분경에는 가튼 동리박귀철(朴貴徹)의집에역시 복면강도가나타나 주인을 협박하다가 가진돈이 업슴으로그대로 도라가고 한시반경에는 그동리 김건중 (金健中)의집에 나타나 현금팔원삼십삼전을 빼아서간후 또다시두시삼십분쯤되여 그동리 백원영(白元榮)의 집에나타나 주인을 협박하엿스나 가진돈이 업섯슴으로그집에 놀러와서 잇든손을 협박하고 현금삼십사전을 강탈한후어데로인지 자취를 감추엇는데당지 경찰은이와가티 두어시간동안에 한동리 네집을덥친 강도는 형색을보아 한사람의소위로추측하고 형사대를 팔방으로 풀어 범인수사에 활동중이라고한다

殺妻嫌疑풀고저 六年間을尋人行脚
서울까지와서愛妻찾고보니 意外!품에는罪의씨

삼일 오후세시경 부내삼판통삼십번지근처에 어떤 시골사람하나이 서울사람비슷한녀자와 길가에서 서로가자거니 안가자거니하고다투는것을때마츰순시하든동산서원이발견하고자세히조사해본결과 그들의사이에는 듯기만하여도 너머나 놀라운사실이숨어잇는것이판명되엿다 이사나히는 강원도 철원군입북면검사리 (江原道鐵原郡貢北面檢寺里)사백구십구번지에 사는 리장순(李長順)(三六)으로그가열여섯살되든때에 평강군 세포리 (平康郡洗浦里)에 사는 김춘배(金春培)의 딸 당시열일곱살된 김란(金蘭)(二二)과 결혼하야 사년동안이나 가치살어오든 중 소화사년이월스무닷샛날 김픈밤에 김란은 아모리유업시어데로종적을 감추고 말엇다한다 전긔 리장순은 녀편네를잃어서 걱정인데다가 설상가상으로 그의장인 김춘배는 필경 자긔딸을 죽인것이틀림업다고 자긔사위인리장순을 걸어 철원경찰서에고소를 제출하엿슴으로 리장순은 살인혐의로 삼개월이상이나 경찰서의 엄중한취조를바덧다한다 고소만 햇슬뿐아니라 집에까지 뭇처와서 내딸을차저노치 그러치안으면 내딸대신에 나무때기라도 깍거노흐라고 야료하는통에 리장순은견딜수가업서 어떠케던지 그의안해를차저서 자긔의 무죄함을변명하기로 결심하야 가산을탕진하여가면서 자긔도 차저다닐뿐아니라 서울사는 자긔친척에게도부탁하야 그의안해의 행방을차젓다한다 그지성이면 감천이라할까? 그의정성이 갑흠인지 이날우연히도 그의안해가 부내 삼판통(三坂通)사십사번지에서홍재창(洪在昌)(三二)이라는사나희와 동거하는것을발견한 그는 곳가티 자긔시골로 가자고 하엿스나 그의안해 김란은죽어도 나는못따라가겟다하야 전과와가튼 희극을길가에서 일운것이라 한다 그안해 김란은전긔 홍재창과벌서 사랑의씨를나서 두살먹은사내아이를 품에안고 룡산서에방금 류치보호중이라는데 홍재창이라는 사람은백화젓 장사로가끔가끔 전긔검사리에 다니든자로그녀자가 다려난후로는 일체장사를 오지안하엿다하며 지금그는 고무신행상 흑하고 전긔삼판통에서 구차는하나 자미스러운사랑의 홍늘일우고잇는 것이라한다

孟山에橫行든 二人强盜就縛

【平壤】 작년팔월이일과십월십칠일 두번이나 맹산군봉인면덕중리(孟山郡封仁面德中里)정석구(鄭錫球)동리장명환 (張明煥)…

運動競技

全京城陸上競技選手權經過 【夕刊繼續】

▲一般추력部決勝

【四百米】▲1岩崎(朝鐵)五六秒四 ▲2許萬(아스) ▲3徐昊世(遞信)

【八百米】▲1申泰煥(金融)二分八秒四 ▲2李一鎬(京城) ▲3韓範錫(月星) ▲4森(遞信)

【千五百米】▲1白圭福(朝鐵)四分三五秒五 ▲2韓範錫(月星) ▲3金丙天(往十里) ▲4趙二福(永登浦)

【高허들】▲1山本(朝鐵)一七秒二 ▲2池上(業專)

【五千米】▲1文允善(平壤)一七分一秒二 ▲2吳奇榮(아스)

【一萬米】▲1柳長春(遞信)三二分二五秒二(新記錄) ▲2安三鎭(往十里) ▲3黃慈童(아스) ▲4朴癸星(아스)

【四百米릴레이】▲1朝鐵四七秒二 ▲2遞信

▲一般필드部決勝

【砲丸投】▲1金鍾俊(朝鐵)一一米六六 ▲2劉約翰(朝鐵)一一米四二

【走高跳】▲1宮武(遞信)一米七〇

【投圓盤】▲1劉約翰(朝鐵)四一米七二 ▲2金鍾俊(朝鐵)三六米九九 ▲3徐昊世(遞信)

【走幅跳】▲1山本(朝鐵)六米三四 ▲2春山(遞信) ▲3佐古(朝鐵) ▲4韓喆鎬(遞信)

【三段跳】▲1福田(朝鐵)一二米四一 ▲2稻葉(아스) ▲3三春山(遞信)

▲中等추력部決勝

【百米】▲1李乙炯(養正)一一秒七 ▲2徐泰源(高) ▲3李浚鉉(一高) ▲4中出(龍中)

【二百米】▲1李乙炯(養正)二三秒一 ▲2安永巖(養正) ▲3大門(京師) ▲4大井(龍中)

【四百米】▲1吳壽泳(養正)一分一秒 ▲2本田(京師)

【八百米】▲1崔俊根(養正)二分一二秒二 ▲2大塚(龍中) ▲3梅田(龍中)

【千五百米】▲1崔俊根(養正)四分三三秒四 ▲2金義和(京師) ▲3安鍾澤(一高) ▲4大塚(龍中)

【五千米】▲1孫基禎(養正)一六分二六秒二 ▲2金義和(京師) ▲3崔三俊(京師) ▲4李喜星(京師)

【一萬米】▲1柳錫麟(一高)三七分三三秒六 ▲2崔容杰(養正)

【高허들】▲1安建(龍中)一九秒四 ▲3琴東用(養正)

【千六百릴레이】▲1養正高普(安永巖•吳壽泳•李乙炯•金鏞元)三分五一秒 ▲2龍山中學

▲中等필드部決勝

【投砲丸】▲1金鏞元(養正)一一米六一 ▲2藤田(龍中)

【棒高跳】▲1蘇鎭南(一高)二米九五 ▲2中村(京師) ▲3鄭貴(龍中)

【投圓盤】▲1高在源(大連)三二米五三 ▲2本鄕(京師) ▲3洪永憲(徽文)

【走幅跳】▲1中川(龍中)五米六八 ▲2大門(京師) ▲3中村(京師)

【投槍】▲1野水(龍中)四四米一四 ▲2大井(龍中) ▲3洪永憲(徽文)

【三段跳】▲1岡部(龍中)一一米九九

極東陸上豫選
孫、白兩君도出戰 來七日發東京에

京城陸上競技聯盟主催의第三回全京城陸上競技選手權大會에서好記錄을作成한 柳長春、劉約翰兩君이 來十五·六兩日東京에서열리는 極東陸上競技豫選에出場한다함은 旣報한바어니와同豫選에 養正高普의 孫基禎은同校에서 派遣하기로되엿스며 白圭福君(鐵道)은 自費로出戰할터이라는데 一行은來四月七日、午後九時四十分京城驛發列車로 壯途에오를터이라한다

中等選拔野球

【甲子園電話】 中等選拔野球經過는如左

【準決勝戰】
○浪速商業3…1神戶一中×
○明石中學2…1京都商業×

【決勝】
○東邦商業6A…3明石中學×
○享榮商業10A…1和歌山中×

咸興의籠球熱 北朝鮮籠球大會
本報支局後援으로

【咸興】 咸興體育會主催의綠星籠球團및 本報咸興支局後援의第二回 北朝鮮籠球大會는 今月下旬當地에서 開催될터인바 同大會를압두고 北朝鮮各地의籠球熱은 高潮되여第一回보다도一層盛況을豫期하고잇다

函館災民救濟金

一金六圓也 江原道大浦港 農漁村振興會婦人部
一金貳百圓 朝鮮日報社
一金五拾圓 方應謨
合計二百五十六圓

京城保育合格者

趙順讓 李申順 李順伊 金永善 金應寶 金玉奎 張東仁 李華瓊 吳晉永 姜潤鳳 文金女 崔誠分 金文玉 林喜 美子 李溫實 朴貴南 梁水海 趙玉英 姜金子 朴貞濟 蔡寶順 金順姬 崔思實 金禎善 李玉子 鄭貞淳 金貞任 曺貞順 柱宣子 李姙喜 金福順 河鍾出 朴順益 鄭淑子 以上 金德生 吳錦喜 李點順 南慶玉 韓畢生 崔實姙 朱貞姬 崔吉突 李惠子 張孝準 柳必南 盧貴女 四十六名

藥專合格者

白駿源 李煥昇 李鶴墩 姜三鵬 池浦植 吳鶴燮 金永培 成聖用 尹定熙 咸豪俊 金鎭益 金榮達 洪文和 金熙德 金龜煥 玉俊植 李東善 尹錫弘 閔泳宇 劉基喜 柳根萬 禹麟根

梅毒、體毒이 自身에게얼마큼무서운것인지、子孫에게對하야 얼마나 慘害를끼치는지、또어떠케하면 이고질인病苦에서脫出할수잇는지 는여러論議할바 만흐며、新聞雜誌에도 每日가치 쎄워잇소。 그러나理論의時代는지나고 實行이急務의 時代외다

편안하게 體毒을排泄하라

毒掃丸

梅毒治療에 빼놀수가업는 沃素療法

兎疫素의增殖도 梅毒治癒의要件

重症用毒掃丸

重症用毒掃丸 梅毒性皮膚病 同 內臟疾患 同 神經痛 가렛숏 류마치스 惡性여드름 動脈硬化 甲狀腺腫

適應症 初期梅毒 慢性梅毒 潛伏梅毒 先天梅毒 痳毒 小兒胎毒

重症用毒掃丸 二圓、三圓、五圓、十圓、二十圓、三十圓
普通用毒掃丸 五十錢、一圓
小兒用毒掃丸 三十錢、五十錢、一圓

(全國有名藥店에잇소)

本舖 東京市神田區花房町 株式會社 山崎帝國堂 振替東京一四六七

流行性腦脊髓膜炎 釜山府를再次襲擊
女工一名死亡、二名感染

【釜山】 금번영월이래부산부내에 류행성뇌척수막염(流行性腦脊髓膜炎)환자가 삼명이나발생사망한중 부산진(釜山鎭)조선방직(朝鮮紡織)회사녀공한명이 잇섯는데 지난일일에도조방긔숙사내에서 동회사녀공 류순자(劉順子)(一六)와 박차분(朴且分)(一六)두명이발병하야초량철도병원장고야(高野)박사의진단을바든바류행성뇌척수막염으로진단되야 도위생과장은 우창(牛窓)부산서위생주임을 대동하고 임일오전십일시 조방긔숙사로 출장하야 회사측과 당면의대소독과전염예방에 관하야 협의하엿다 이병은 완전한 예방법이업는괴병(奇病)인만큼 긔숙사내에 전염류행을 대단히 우려한다는데 긔숙사내에는 소동이러나서 가장불안을 늣기고잇다고한다 또한목도영선정(瀛仙町)칠구배팔십구번지 철공직공장야웅부(長野熊夫)(三)도동병으로 진단되엿슴으로 부산시내에 류행병만연될것을우려하야 당국은 방금대책을 강구중이라한다

순사리에주기에대하야 정의오게 되고 따라 협의연도가 잇섯는데 피고는상고하기로한다고한다

仁商議員補選

【仁川】 인천상공회의소에서는 지난이일오후 네시부터 동소회의실에서의원 총회를열고 십수년간동 소회의원 또는상의원으로 잇든영정방길(永井房吉)씨의사임에 대한보결 선거를행하야 월미도(月尾島)유원주식회사금정성삼(今井省三)씨가당선되고그뒤를이어길전(吉田)회두로부터지난번에조선미의 차별 문제로도동(渡東)진정한때의보고가잇섯다한다

雄辯大會盛況

【大同】지난삼십일일오후팔시에 평양동면련합긔청면려회지웅부 주최 (平壤東面聯合基靑勉勵會 [illegible])인 웅변대회는 지자영(池子永)씨사회하에개최되여십칠인남녀연사의웅변으로만장한청중을 도취케하엿는바 수상자는다음과 갓다한다

一等 [illegible]
二等 [illegible]
三等 [illegible]
四等 大五[illegible] 同 [illegible]
五等 [illegible]

[illegible] 洪光成 高普少年軍

被轢殺者遺族이 慰問金을拒絶
會社를相對로提訴

【原州】 긔보=지난십팔일원주문막간에서 조선트럭 운전수 가운전하는 화물차가 동군호업면박긔남(朴箕男)을 치여 드듸여절명케 하엿다는것은 긔보한바어니와그런지 삼일후 죽장례의일임변견(逸見)씨는 연금백원을가지고흥업경찰관 주재소 직원들과동반하여 전긔사망한 박긔남의집을 방문하야그 유족에게주고절대로 문제를아니 이르키겟다는증서를 하여달라고 하엿스나그유족들은 이를 거절하고변호사를 대리로 소송을제긔하엿다한다

高麗靑年會主催 市民競技大會
七十餘名任員을選定

【開城】 긔보=개성고려청년회(高麗靑年會)주최 제십오회개성시민육상경기대회(開城市民陸上競技大會)는 오는오월오일을기하야 개최키로된바 동회에서는 각층을망라하야 칠십여명임원을 선거하야 각방면으로준비에 분망중이라는데 대회의 임원은다음과갓다한다

▲大會長=孫鳳祥▲副會長=金正浩▲施賞部=朴鳳鎬 金基永 崔益模 禹哲熙 崔仁鎬 高漢澔 申公良▲司令部=高漢承 黃中顯 張熙淳 孟元永 朴尙悳 李瑄根▲審判部=金鶴棡 宋基洙 劉基豐 孔鎭恒 林漢瑾 李應昌▲監察部=馬泰榮 金永洛 朴鼎圭 金□郁 韓宗洙 朴二鉉▲接待部=具昌模 孔鎭泰 禹相淳 全日永 林晃植 金泳俿 金基晃 朴尙玉 金慶龍 崔浩善 金俊熙 林漢祖 朱德鍾▲準備部=林鳳植 崔鉉 李始永 趙彦煥 朴喆熙 張慶淳 黃柱鳳 崔圭淳 安貞煥 孔聖集 韓宇榮▲計時部=韓壽豐 河奎杭 金中重 韓昌釣 朴在淸 梁滑泰 朴尙祥 馬鍾泰 金文煥▲救護部=韓

第三普校는保留 爲先學級을增設
大田의普校入學難緩和策

【大田】 대전시내에 초등교입학난은 년부년격심하야 금년은지원자 약팔백명중에 겨우이백여십명을 수용하고 남어지오백여명 가량은수용할 도리가업는상태에잇서서 모이는 곳마다중대문제로 걱정근심의 화제가되여잇는 터인데 작년봄이후로 이 초등교입학난문제를 다소완화시길 목적으로 조직된보교증설 위원회의원과 동후원회역원제씨 학급증설이나 각제삼보교신설을 목표로만원의 긔부를모집키로 열변을두고 불면불휴의적극적 활동을하여온바 변변이번약하야 가는우리 주머니에서그만한 돈이나올수가업서 현금으로는 겨우 삼천육백원밧게 모집이되지 안엇슴으로 만원을요하는 보교신설은고사하고 그반 오천원을요하는 학교증설도 못할 형편임으로 사월일일에학급이 증설이되면 입학을허한다는조건으로 칠십명아동의 부형들을 후원회리사장으로부터 대전읍 사무소로모이게한후 대책을협의한결과 부형한사람에 대하야칠원이상의자유긔부를하기로결의가되여 학급증설 필요액오천원중에서 개학긔가 박두한 만치 우선사천원을 군으로납부하야 사월팔일에 개학케한다고 하며나머지 천원은긔부를 승락하고 아즉납부치안은 사람에게 독촉하야 곳납부케하도록 하기로되엿다한다

良民毆打巡査 懲役五個月言渡

【公州】 루보=충남론산주재

矛盾된護岸工事
護岸工事한다고 天然護岸岩을破壞
關係南原市民反抗

【南原】 지난삼월오긘에남원읍양로당소계소(養老堂少稧所)를비롯하야 유지백여명이 동문박현재호안공사(護岸工事)사무실에집합하야청부업(淸負業)자와의사이에암석파굴(巖石破掘)관계로 장시간물의가 분분하다가 필경청부업자측으로부터 공사를중지하기로하고 도청 토목과로보고를하야 현장을 임검케하기로되여 일반은도청의 내남을기다리며 진정하기로하고 해산하엿다는바 그상세한 내막은 금번도 계속사업으로 호안공사가진행되여잇는데 말성이되든「뱌랑이바우」는남원유인후(咽喉)와가튼처년적호안(天然的護岸)의거대한바우인데 청부업자측에서는 먼곳에서 돌을캐오자면막대한 경비가들것임으로 공사상평리를취하야 지방의 여론을무시하고 파굴하게되던 관계라는데 장래이문제의 추이가매우 주목된다고한다

外金剛開山式

【外金剛】 외금강온정리에서본월삼일에 본사지국과 온정리민일동주최하에 개산식이거행되엿는데 만물상, 구룡연탐승지는 무난이탐승할수잇슬뿐아니라, 계곡산이 금강으로변해오는경치는 무어라고말할수업는바고인의 시(詩)에이른바 욕견금강진면목(欲見金剛眞面目)인데 무화무엽차시래(無花無葉此時來)란 것과가터 춘경을볼수잇다면 이긔회에만이오기를바란다고한다

◇寫眞……外金剛開山式의光景

『움』돗는新春에 白雪이滿乾坤
積雪量實로二尺餘
郵、貨車等이一切不通

【新市】 대자연의봄은산넘고 물건너 삼천리강산에도 거침업시차저돌어산과들을고욱게단장하라는이때에때안인백설이온산하를덥허분벗을 자랑하든 춘광도빛을일코겨울을놉련상하는괴괴한현상이 평북귀성 지방에별생하엿다지난삼십일오후한시부터 흰눈이나리기시작여종일긋치지안코 익일오후 한시까지나린적설의량은 실로 이척여에달한바 종우를가리지안코매일운전하는선천조악간우편차(宣川造岳間郵便車)까지불통되엿다한다

배곱하野菜캐는 姙娠婦를毆打
農場內『밧』헤들어갓다고
鹽田農場의不祥事

【忠州】 춘궁을이기지못하야 초근목피로나 연명할가하고 밧흐로 논으로 바구니를끼고아죽보입락말락하는 새혹닙을 차저단이는 녀자의수효가 졸지에늘어감은 사실인데 충주읍대수정이십번지(大手町二〇番地)에거주하는황이만(黃二萬)의처정금례(鄭今禮)(三五)는 지난 이십구일 동무들과함께 나물을캐러나가서 시외 염전농장(鹽田農場)의구역인 밧데가서 나물을차즈러단이든중 권긔농장에서 일하든대곡희대차(大谷喜代次)(三五)라는 고용인이달려와서 밧을빼앗다는 조건으로 대자곳자로권긔임신(姙娠)오개삭에갓가운정금례를 무수히구타한 사실이잇섯다한다 뜻밧게봉변을당한 정금례는 동무들에게끌려 집으로도라왓스나 온권신을 금신치못하게되여 드러눕게되엿는데 점점몸이괴롭게될뿐만아니라밋흐로피(血)까지쏫게되여 위급한그는 필경가해자(加害者)를 불러의사의 진찰을구하게 되엿다 권긔가해자는 황겁한마음 으로 곳의사를 불러응급치료를 시켯다는데의사의말은류산(流産)의 념려까지는업다고한다

被害者 鄭今禮 談 저로서는 무한히못그럽습이다만은 내가그곳에 드러간것이무엇을 절취하려간것은 아니지만은 이러케까지 이르게된것은 참으로놀라운 사실이엿습니다 그러나남편 되는분도멀니옥천(沃川)으로돈벌러가서도라 오지안엇슴에 어디다호소할곳도 업섯습니다 그러나 그도(加害者) 어면고의를가지고 그런게야 아니겟지요다만 미처생각지안코 무엇에분긔를 참지못햇든 것이겟지요 그러니그저 속히몸이 나성하게되여 아모말성이나 되지안엇스면 불행중 다행이겟서요운운

加害者 大谷喜代次 談 참으로미안스럽습니다 그러나 국을떠나 이러저리로 도라단일때는조혼일을하라하엿는데 이러한 불상시가잇섯스니 무엇으로 사죄하릿가? 그러나 지내간일을 뉘우친들 엇지하리요 오죽 류산(流産)에는별 려업다고하니 불행중 다행이외다 그러고 일체치료비만은 제가부담하겟습니다운운

中等校合格者

全州新興高普

金宗燮 申和徹 崔鉉燮 朴鍾成 姜鍾根 崔貴範 曺永吉 金鍾根 金文和 李康浴 金基午 金昌坤 李甫炯 柳逢春 文圭日 梁柱南 林萬年 金容燮 任升準 盧湘悳 朱珠道 高中逵 梁承植 李鍾鵬 申聖澈 李鍾善 李鍾漢 鄭秉權 尹五炳 羅基煥 崔根浩 崔光玉 宋台錫 張光善 宋雲燮 金炳禁 朴萬洙 李昌圭 高錫贊 白榮桓 朴軫淵 曺明奎 徐官鎬 梁斗永 徐廷燮 丁炳滇 吳鉉成 黃義均 鄭振八 金炳亮 金基漢 李京一 金萬錫 崔在烈 李相瑨

紀全女學校

金圭日 金基玉 金雅德 李起淑 白玉峯 白亭心 金永禮 吳恩順 林玉熙 金月珠 李羅安 鄭奉順 朴明子 李英子 李正實 姜順實 鄭海貞 林永珠 李淑子 鄭允德 金玉卿 黃永德 趙慶子 王永信

安邊公須田市에 養蠶機業所設置
後援會組織、猛烈活動

【安邊】 함남안변군신모면공수전시(咸南安邊郡新茅面公須田市)는 물과백여호의 조고마한시장으로서 주민들은 대개빈한한생활로 그날버러 그날지내가는형편이나 사회사업에 대한단결과성의는 물과가타서 오래전부터 사립신흥학교(私立新興學校)를설립해가지고 나날이다치는재정난에도조곰도굽힘이업시 만혼영재를길너내든바 작년구월에 그학교가 공립보통학교로승격되여 새집을짓고 옴겨들게되엿슴으로 그학교의 낡은집이 비여잇게되엿는데 그곳주민들은 그집을리용하야 양잠긔업권습소(養蠶機業所)를 설치해볼계획으로유지김태성(金泰聲) 진긔업(陳基業) 조종희(趙鍾禧) 신광윤(申光允)등 제씨의 발긔로 예칠긘에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방금대활동중이라는바 별서군당국의 량해를어더 보조금까지 밧게되엿슴으로 오래지안어개교되리라고한다

怒濤에휩싸여 航行商船坐礁
損害三千餘圓

【襄陽】 수일동안 일긔가 불순한관계로 해일이심하여 해상 피해가 적지안은 이즘에 부산(釜山)모회사의 상선대창환(大昌丸)이 야양 해안을 이십이일경에 지내다가 불행히손양면가평리(巽陽面柯坪里)물가에 밀려나왓다는데 긔계파손과 해상으로 끌어내기 까지에는삼천약원가량을요하리라한다

地方人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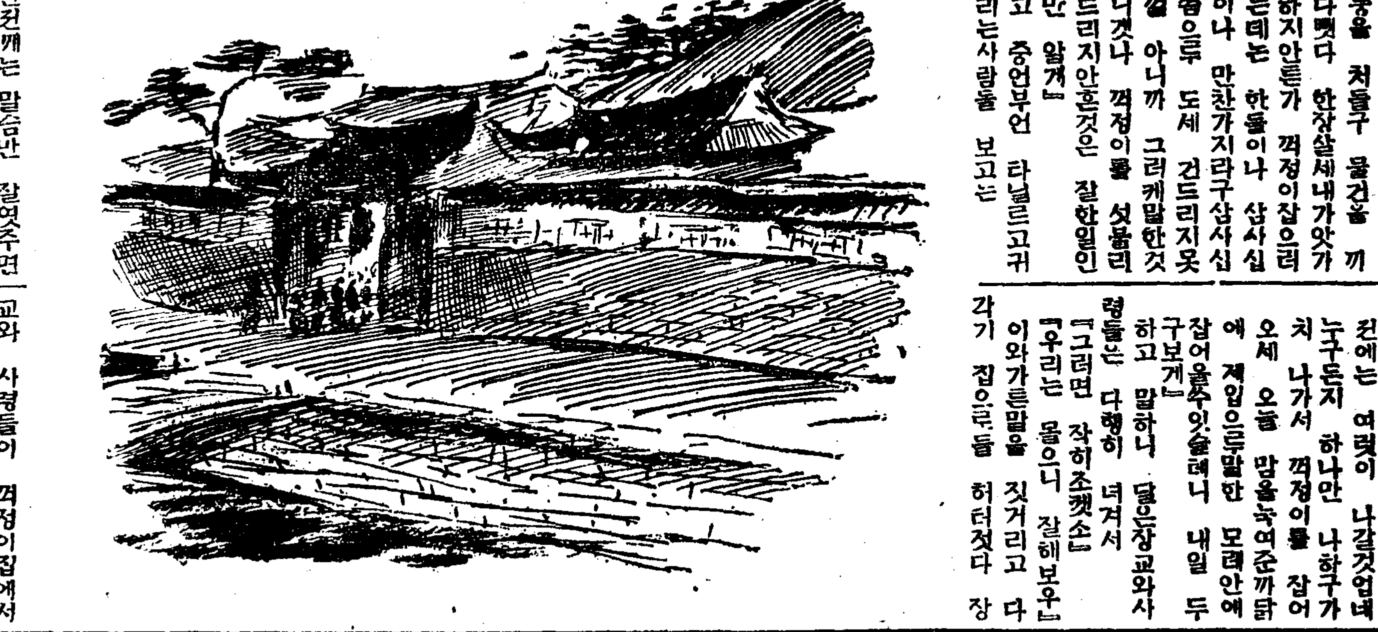
▲鄭賢淑氏(求禮幼稚園保姆)로就任
▲宣在連氏(傳道師)平壤神學校入學準備中去三日求禮發平壤에
▲康基浩君(本報舒川支局記者)과羅甲禮孃의結婚式을來四月九日午後一時舒川邑禮拜堂에서擧行
▲李相洪氏(本報固城支局長)局務를帶하고入京諫洞淸美旅館에投宿
▲山田南原警察署長 新任人事次四月二日本社支局來訪
▲姜源植氏(錦山公普校訓導)滿洲國撫順公普校榮轉人事次去本月一日本報錦山支局來訪
▲沈相郁氏(丁洞面長)新任人事次四月二日本社江陵支局來訪
▲金潤珏氏(鏡城土木管區工手)道土木課榮轉人事次去二日本報鏡城支局來訪

林巨正傳 (440)

洪碧初 作 安碩柱 畵

서림 三의十二

장교와사령이 삼십여명이나 한꺼 몰려나왓다가 뒷동수들을 잡고 들어가니 그중에는남보기 창피하다고두덜거리는사람도 업지안코 또 원님께죄책을당하겟다고 귀성거리는사람도 업지안햇다 그대로돌어가자고 밤톨하든 나이먹은장교가 두덜거리는사람들 보고는 「큰창피를 안당하려면 작은창피는 참어야하네 꺽정이 잡하는가 엇던장산지 자네들 잘 아는가 스무살안짝에 벌서 기둥을 처들구 물건을 까엇다뻿다 한장살세내가앗가 말하지안튼가 꺽정이잡으러 오는데는 한둘이나 삼사십명이나 만한가지라구 삼사십명쯤으로두 도세 건드리지못할껄 아니까 그러케말한것 아니겟나 꺽정이를 섯불리 건드리지안흔것은 잘한일인줄만 알게」 하고 중언부언 타닐르고귀성거리는사람들 보고는 「안컨깨는 말습난 잘엿주면 꾸중한마듸 안들을레니 될려들말게 말슴엿줄것은 내마름세」 하고 한말로 담당하엿다 장교와사령이 관가에 들어왓슬때 그나이먹은 장교가 군수 나와서 「꺽정이를 잡으러 가보오즉 머리를 풀구 죽은아비여페 업드려 통곡하는중이옵듸다 아무리 천인이라두 아비임종두못한놈이 막와서 발상하옵는것을 잡아내기 어렵사와 말미를주구왓소이다」 하고 알외니 군수는 듯고 달는말이업시 다만 「도라할녀려가 업겟느냐」 하고 물엇다 「쳐자식이 가처잇사온까닭에 도라할녀려는 업사오나 든든할성으루 소인들이 꺽정이집을 직히겟소이다」 「그럼 내일 식전 조사뒤에 잡아대령하도록해라」 「녜 그리하오리다」 그장교가 삼문밧게 물러나와서 동무장교와 사령들을보고 「내말이 엇더냐 녕낙재업지」 하고 말이마진것을 자랑하얏다 「그러나 밤에 누가나가 직힐테요」 「나제 삼십여명이 나가 못잡은놈을 밤에 한둘이 직혀 무어하우」 「내일식전에는 무슨 수로 잡어올테요」 「또 무슨거짓말을 꿈여대라우」 여러사령이 주구난방으로짓거리고 나서는것을 그장교가 손을 내저으며 「가만이들 잇게」 하고 놀르고나서 「우리가 나가서 직히지안흔 때두 꺽정이는 도망못할게니 별려할게 집에 빼처노흔 아비송장이 잇지 옥에 가친 식구가잇지 어딀 도망하겟나 그러나 내일 식전에는 여럿이 나갈것업네 누구든지 하나만 나하구가치 나가서 꺽정이를 잡어오세 오늘 망을녹여준까닭에 제입으로말한 모레안에 잡어올수잇슬테니 내일 두구보게」 하고 말하니 달은장교와사령들은 다행히 녀겨서 「그러면 작히조켓소」 「우리는 몸으니 잘해보우」 이와가튼말을 짓거리고 다각기 집으로들 허터젓다 장교와 사령들이 꺽정이집에서 나간뒤에 꺽정이는 다시안방에 들어와서 멍하니안젓는데 련왕동이가 옥에서돌아와서 「형님을 잡으러 한때가 나왓다드니 거짓말이구려」 「지금막들갓다」 「형님을 가만두구갓스니 웬일이요」 「초상 상제라구 인정썻든지 몰으지」 「나는 그동안 옥에가서 보구왓소」 「병들이나 업다드냐」 「누님이 장독이나서 말아니구 말삭동이가다죽어갑듸다」 「옥사쟁이가 말썽부리지안튼냐」 「그까지 자식이 말썽부리면 소용잇소 애기어머니하구 한참이나 이야기햇소」 「우리누님은 장독이나 안낫다드냐」 「애기어머니는 얼골이 좀 파리햇슬뿐입듸다 애기어머니가 형님더러 관가에 잡혀 들어가기전에 한번 꼭 면저와서보라구 말합듸다」 「지금 좀가보구오겟다」 「나두 가치가겟소 내가가서 옥사쟁이를 못들구이야기할캐 그름에형님 애기어머니하고 이야기하시오」 「그럼가치가자」 꺽정이는 련왕동이 룸다리고 옥에잇는식구들을보러왓다



早稻田大學講義

第一号出づ!

堂々九大講義、新學期を迎へて整然第一號を送る。悉く珠玉の文字、獨學者座右の至寶である。此の廣告を見た瞬間に諸子一生の幸福は芽生える。この好機を逃さず、入學せられよ。

內容見本進呈 (望みの講義を明記して申込み次第)

東京・早稻田 早稻田大學出版部 振替東京一一二三●電話牛込三四五番

中學講義

(前期中學二年程度 後期三、四、五年程度) 各一ヶ年修了 學費月一圓・八大附錄進呈

どつしりした內容、面白くて詳く解る講義、心躍る三大特典、感謝に餘る八大附錄、何から何まで流石に早稻田！ 全世界を向うに廻して孤立日本が蹶起するの時、意氣に燃える青年諸君よ、學つて早稻田大學の中學講義に入學し、次の時代の大活躍に備へられよ。

女學講義

毎月一回發行・學費月一圓 一ヶ年半修了・六大附錄進呈

女子一代の教養の基礎は本講義によつて造られます。働きながらの勉强でも一年半の後には知らず識らずの間に高等女學校卒業程度の學力が得られ、專檢や教員檢定にも合格出來ます。眞に模範的の女學講義、此の際入學する方に限り他に類のない大特典があります。

商業講義

毎月一回發行・學費月一圓 一ヶ年半修了・六大附錄進呈

商業全般の知識を修めることは、商店・會社・銀行方面で確實に立身出世する第一條件である。學校に行かない方は一年半の獨學で立派に甲種商業卒業の實力のつく本講義で勉强せられよ。他に類のない大特典・大附錄もあり、卒業後は早稻田大學入學の道も開けてゐる。

建築講義

毎月一回發行・學費月一圓三十錢・一ヶ年半修了

內容は豐富、解說は平易、學費は低廉。講師は斯界最高權威、修了年限は僅かに一年半。どの點からも獨學者本位の最良指導書である。今回勉學上の諸特典を提供して新學期を開講し、特に便宜の爲希望科目の選擇講讀にも應ずる。

電氣工學講義

毎月一回發行・學費月一圓三十錢・一ヶ年半修了

電氣工學講義は獨學者唯一の登龍門である。電氣主任技術者資格試驗第二種、第三種を程度とした完全無比の受驗準備機關。一面、學校在學生、實務家の好指針として多年好評を博してゐる。電氣工學豫備講義は初學者の爲め特に學習に必要な基礎知識を授けるもの。共に今回勉學上の大特典を提供して新學期を開講。

電氣工學豫備講義

毎月一回發行 學費月一圓 一ヶ年修了

文學講義

毎月一回發行 一ヶ年半修了 學費月一圓二十錢

文藝は人生の華、國民精神の擁護である。文學復興の聲高く、日本文化の研究盛んな今日、文藝一般の研究・鑑賞は現代人の第一義的教養であらねばならぬ。常に時代に先んじて充實徹底せる本講義は、文藝愛好者の唯一の伴侶、文檢受驗者には無二の良師友である。

政治經濟講義

毎月一回發行 一ヶ年半修了 學費月一圓二十錢

大學程度の政治經濟學を獨習し、現下の非常時に對應する實際知識を得るには本講義を讀め！大學で三年間に學ぶべき斯學を一年半の獨學で完修する樣にしたもので、早大・帝大の諸教授博士が平易明快に說かれた名講義は、六千五百餘頁に亘る活學問の寶庫である。

法律講義

毎月一回發行 一ヶ年半修了 學費月一圓二十錢

大學三年の課程を要する法律を一年半の獨學を以て正則に修了し得る講義錄は是れ！ 大學教授・博士・大審院判事・辯護士等各方面の權威が親しく執筆した名講義は、何人にも明快周密の理解を與へ、堂々十八冊が揃へば、一大法律百科全書を座右に常備し得られる。

世界一週記 『나이아가라』瀑布 市俄古의世界博覽會

本社特派員 (四十二) 李勳求記

『나이아가라』의瀑布는 그壯觀과偉大로 世界最大한瀑布라한다 이瀑布는『에리』湖와『온타리오』湖를連結하는『나이아가라』河의上部에位하야 地形上으로瀑이되여가지고 自然瀑을이루엇는데 이瀑布는 河의中央에『고트』島가잇서서 島의東便部分을 加奈陀瀑或은馬蹄瀑이라부르고 島의西便部分을 亞米利加瀑이라 부르는데 瀑의大로는 加奈陀瀑이亞米利加瀑보다더크다 即前者는 그幅이三千十呎 高가百六十二呎이오 後者는 그幅이千呎 高가百六十七呎으로그壯觀은實로 形容할수업다 생각컨대 大量을조아하는米國人에게는 可謂適當하다할만큼 큰것이다 그네들은 잇다금 이곳에와서 浩然之氣를기루는것도갓다

이瀑布의 落下水量은每一分時九千三百餘萬『가론』으로 그聲響은 耳朶를막막하게하며 그形容은 呼雲起霧하야 天神으로하여곰雨를降下케하는것과 도갓고 각가히서보면 오즉幾千의白瀑이 다투어가며 地上에서 異彩하는美한 仙境도보인다。 더욱이 夜間에는 各色의光으로 이瀑布에 照明하야 七色을빗나게하는 夢幻한 光景은 다른데서는 到底히 볼수업는것이다。 瀑布의落下地點에서부터는 『나이아가라』河는 激湍을이루어서 『온타리오』湖에 이르기까지에 急流를 이루는데 이河를沿하야 바라보는水流는 그야말로 大洪水며 山谷間에서 힘잇고 우렁차게 흘러나리는

流水의光 景과갓다 이瀑布를 完全히 보기爲하야는 亞米利加側의都會인『나이아가라』瀑布와 加奈陀側의都會인『나이아가라』瀑布兩處에다 가서 보아야하는데 前者는 人口約七萬이나되는 殷賑한都會이오 後者는 人口約一萬八千쯤되는 적은都會이다。 이兩地는 汽船鐵橋로서 連絡되여 잇는데 이는 兩國의國際橋로서 旅行券만 提示하면 언제든지 通行할수가잇다。 兩側이 다 瀑布를 아래로부터 眺仰하기爲하야 地下道로『허를』을 設施하엿다。 그中에도 加奈陀側의

地下道는 工事費五十萬弗 二十九年의 長時日을要한 規模宏大한者로서 入場料도高價려니와 그길히二百呎의地下道를 昇降機로나려가면 加奈陀瀑의背面을 三個處에서 내다볼수가잇다。 雨衣를입고 이를내다보고 우으로 치여다 보는趣味는 旅行者의興味를돕는데 無雙한갑시잇다。 이도 이『나이아가라』河의兩側에는 [illegible] 그規模의大로도 世界第一이라한다。 [illegible] 大水幅의數百呎의電氣動力을利用하는

水力發電 의總量은 亞米利加側의 工場能力이約하여도 百八萬二千馬力이라한다。 그러하야 이『나이아가라』의水力만 가지면 米洲는全部電化할수가 잇다고하니 놀나울만한것이다

◇

市俄古의大博覽會 市俄古미쉬간湖畔에서 去年六月一日부터 十一月十二日까지에 열린一世紀 進步博覽會는 그施設의妙로나 規模의大로나 費用의 巨額으로나 入場人員의數로나乃至現代文明의精華의集合으로나 前古에업든

大博覽會 이엿다 이제開場期間 五個月에 入場者의數는 二千百萬으로 總收入은 一千百六十萬三千五百五十六弗二十五仙 總費用은 四百七十六萬一千六百六十八弗三仙 總利益은六百八十六萬一千八百八十三弗二十二仙이라報한다 그數字로 나는데는 누구든지놀날것이다 더구나 入場者의數가 現在朝鮮에現住하는 全人口數보다만라는데는 더욱놀나지 아니할수업슬것이다。

이제 그光景을 大概그려보면 『재너랄모타』의 自動車工場館、電氣館、無電放送館、交通館、農業館、公衆館、宗敎館、米國政府館、天文館等이오 이를中心으로하야

一般展覽 館 各國展覽館、朝鮮小南美洲館等이無數히 잇고 空中에는 纜車가 繼續이나려잇다 이리하야 이中에는 現代文明의 精粹가 模仰되어잇고 또現代文化의 最高階段을 展示함과 同時에 現代野蠻의最低形態가 陳開되여잇다。 따라서 이것을한번보고 나면 今日世界의 靜的群像을 遺漏업시보는셈이된다。 이곳만흔 旅費와빗싼入場料를 支拂하고 도 地球의 各方面에서 모아든所以이다。

産業

棉花大增産計劃

耕地面積三十五萬町步로擴張 實棉生産高四億二千萬斤目標

九年度實行에遂着手

棉花增産計劃에對하야 總督府에서는既定計劃인二十五萬町步에 棉生産高三億斤의 第一期計劃으로 三十五萬町步實棉生産高四億二千萬斤에更新擴張하고 初年度豫算四十萬四千圓이承認되엇슴으로 드듸어新年度부터 更新計劃을實行하기로되엇다 이計劃은十年間에約五百萬圓의 豫算으로全朝鮮十一道에 棉作을積極的으로 獎勵하야 現在의獎勵郡百十一郡을百六十五郡에增加하고 또反當收量의 增加及品質의改善을期하기爲하야 優良品種의普及更新을圖하는것인바 總督府發表棉花增産計劃實施要綱은如左하다

▲計劃實施要綱

一、獎勵方針

集約栽培의指導獎勵에依하야 反當收量의增加를 圖하는同時에作付反別의 增加도圖하려함

二、目標

反當收量實棉百二十斤
作付反別三十五萬町步
總生産高實棉四億二千萬斤

三、期間

昭和八年以降十個年

四、獎勵區域

새로平北、江原의二道를獎勵區域에編入하야咸南北을除한十一道에서棉作을獎勵하기로함

五、棉作獎勵郡

既定第一期計劃에잇서서는昭和六年現在棉作付面積三五〇町步以上의郡을獎勵郡으로하얏스나 更改計劃에잇서서는 同年現在一〇〇町步以上의棉作付面積을有한郡을 獎勵郡으로하기로함

六、施設事項

(1) 棉、獎勵에關한職員設置

本計劃遂行의萬全을期하기爲하야 左와如히職員을新設하는바임

(가)、[illegible] 品種改良及 原種圃經營並試驗調査를爲하야 陸地棉을主로하는 木浦棉作支場을擴充하고또在來棉을主로하는龍岡棉作支場을 新設하기로 하고이를 爲하야 昭和九年度에는 木浦支場에 技手一名을 增置하고 龍岡支場에技師一名 技手一名雇員二名을 設置하기로함

(나) 産業技師設置補助 昭和九年度에는 慶南、黃海의二個道에對하야 一人當二、四〇〇圓式國庫에서 補助하기로함

(다) 道在勤産業技手設置補助 現在棉作獎勵道中 六個道에 殘餘의 五個道에對하야 産業技手一名式配置하고 이에對하야 一人當一、五〇〇圓을 補助하기로함

(2) 郡駐在産業技手設置補助 棉作獎勵郡一六五郡에 産業技手一人式 計一六五人(既設計劃에比하야 五三人의增)을設置하고 이設置費로國庫에서 一人當九六〇圓을 補助하기로함

(3) 指導郡移動後의郡에對한施設

指導郡으로서의 特別濃厚指導를마친郡에對하야 指導期間中의 指導結果를 確保시키기爲하야 大體從前의施設을繼續實施케하기로하고 이施設費로 每年一郡當一、〇〇〇圓을補助함

(4) 指導郡의設置

集約栽培의 徹底를期하기爲하야 郡을單位로指導郡을設定하고 三個年間이에特別濃厚한指導督勵를 加하기로하고 이施設費로一郡當四、三〇〇圓을 二個年式繼續補助함 그리고各年의指導郡數는 棉作獎勵郡一六五郡의 三分之一인五五郡(但昭和八年度는 既定計劃에基하야三七郡으로함)으로하고 四年채마다이를 他郡에移動하야十個年間에 (九個年이될터이나 昭和八年度의指導郡이三七郡임으로 第十年에도十八郡을設置할 必要가잇슴에依함) 全部의郡을一巡하기로함

朝鮮米의重要性

經濟機構와의聯繫 (三)

卅四年前以來쌀타령

朝鮮人口와農家

以上과如히 八十四萬餘町步의水田으로부터 百六十九萬餘町步나 水稻를植栽한朝鮮은亦是農業本位이다 全人口의七割七分强이農村의人口이오 農業만에依하야 生活을營爲하는터로 日本內地가 如何히農業國이라하드래도 全人口의五割內外를占함에不過함에比하면 朝鮮經濟의好況、不況은農業의盛衰에依하다고斷言할수잇다 如何히軍需工業이 盛해지든지輸出貿易이 隆盛해지든지財政인플레가景氣를恢復하던지 朝鮮民인土地에서는 全人口의七割七分이農과가티 工業도消費를目的으로하고 商業도農家에의供給을主로안할수업다 從하야 지금의景氣等 好影響을受함이적고 다만都市의一部에好況을齎來하엿슴에不過함으로 都市의經濟로서도 紅燈一點에도 當치안는터이오 더구나農村經濟에잇스랴

그리고昭和七年末現在의朝鮮農民과全人口와의比率을示하면

昭和七年末農業者數

	農民 世帶數	農民 人口	全戶 世帶數	全戶 人口
朝鮮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戶口에對한農民의比率은

	世帶數	人口
朝鮮人	七七%强	七九%弱
計	七二%强	七七%强

以上에依하면 朝鮮人은實로人口의 七割七分强、世帶의七割六分强이 農民이오 其他在住人은農民으로보다도 其他의産業 或은俸給生活 即智能的職業을 가지고잇다

그리고 二百九十三萬餘世帶의農民階級이 如何한比率이냐하면

	世帶數	百分率
地主甲(不在地主)	[illegible]	[illegible]
地主乙	[illegible]	二.四%
自作	[illegible]	一六.三%
自作兼小作	[illegible]	二五.三%
小作	[illegible]	五二.七%
火田民	[illegible]	二.〇%
合計	[illegible]	一〇〇.〇%

이에反하야日本內地에서는昭和七年調査에依하면

(單位千世帶)

	世帶數	百分率	朝鮮百分率
自作	一、七五四、五	三一.〇%	一六.三%
小作	一、四九八、六	二六.五%	五二.七%
自作兼小作	二、三九九、四	四二.五%	二五.三%
計	五、六五二、五	一〇〇.〇%	

임으로 表示한바와가티日本內地는朝鮮에比하야 小作은約半分에不過하고 自作은오히려二倍이다 朝鮮農民으로서보면日本內地農民은內容的으로優秀한狀態를示하고잇다

다음에朝鮮農民의自作及小作의耕作地面積을보면 上記와가티世帶數에잇서의큰差異가잇슴으로 其耕作面積도差異가잇슴

昭和七年自作小作別耕作反別表

	自作	小作	計
水田	[illegible]町步	[illegible]町步	[illegible]町步
畑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은勿論으로 水田은自作의半에不過하나 畑作은僅少한差異나마自作이만타

朝鮮米의輸移出

明治四十三年에 八十萬石의輸移出을示하고잇든것이 昭和七年에는約十倍가까히이에達한것은 朝鮮米가低價일뿐아니라品質向上에努力한結果이다 現在는 昭和七年九月에公布된 國營檢査法에依하야 合格米가아니면 道外에搬出할수가업스며 또五等米以上이아니면 輸移出이不能하다고規定되어잇서 品質의點으로는日本內地米以上의 價를가지잇다고

朝鮮米의檢査는 明治四十二年木浦商業會議所에서 玄米의輸移出檢査를施行한것이처음이로 其後大正二年에鎭南浦、仁川、釜山의三商業會議所도檢査를開始하고 其結果는朝鮮米의貿易에極히良好한成績을得하얏슴으로 各地의穀物組合이接續하야檢査를開始하고 大正四年二月에至하야겨우府令으로써米穀檢査規則을公布하고 各道當局이直接或은公共團體에檢査케한것이다 其後各道가相異한檢査方法을取하는弊가 잇섯슴으로 昭和七年九月前記朝鮮米穀檢査法을公布하야 檢査의國營을斷行하고 去益朝鮮米의品質改良과取引安全性에向하야精進하고 잇는바過去五個年間의玄米及白米檢査成績表를示하면如左하다

累年玄米檢査成績表(單位叺)

年度	檢査數	合格數	合格比率	不合格數
昭和四年度	一〇、三五五、九三七	一〇、二二一、八四九	九八.七	一三四、〇八八
同五年度	八、八四九、〇五四	八、六六〇、八六九	九七.八	一八八、一八五
同六年度	一三、八一九、四五一	一三、六八八、七六二	九八.八	一三〇、六八九
同七年度	一二、四九〇、〇三八	一二、三二六、一六五	九八.五	一六三、八七三
同八年度	一一、二〇三、八七一	一〇、一二三、一〇一	九〇.三	一、〇八〇、五六八

累計白米檢査成績表

年度	檢査數	合格數	合格比率	不合格數
昭和四年度	六、〇四八、五六三 ×一、七六三、九六五	六、〇四〇、五六一 ×一、七六三、九六五	九九.八 一〇〇.〇	八、〇〇二 ×
同五年度	六、五二七、〇〇二 ×二、二九九、三〇五	六、五一七、四四九 ×二、二九九、一二九	九九.八 九九.九	九、五三三 ×一七四
同六年度	一〇、七六五、三〇二 ×三、二五三、五九八	一〇、七六四、二一五 ×三、二五三、二五二	九九.九 九九.九	一、一二五 ×三四四
同七年度	一〇、九〇三、〇四〇 ×五、二〇九、九六五	一〇、八四八、六〇四 ×五、二〇九、一三七	九九.五 九九.九	五四、二三六 ×八二八
同八年度	一三、四四五、〇八〇	一三、〇〇三、二四七	九六.九	四二一、八三三

備考 昭和八年度分은六十延換算에依하고 昭和七年以前은叺을單位로함

上記와如히玄米와白米를合하야昭和八年度는一千二十八萬六千餘石이되고 其中檢査가重複되여 約八百萬石이 輸移出된것이라면 檢査米의朝鮮內消費는百餘萬石에不過하다 從하야 輸移出檢査가目的이 되것을 約一割로보면約九百餘萬石이

[illegible] 朝鮮의經濟가 朝鮮米의輸移出에依하야 維持되고 生活力을保持하고잇슴은 贅述할바인데 輸移出數字를보면 明治四十三年에는僅히七十九萬八千餘石、價格으로는 [illegible]千餘圓이던것이 昭和八年에는 [illegible]千餘石、[illegible]으로 數量으로는 數十倍、價格으로는 三十五倍나되엇다 詳細는如左하다

累年米輸移出入高表

年	輸移出 數量	輸移出 價額	輸移入 數量	輸移入 價額
明治四十三年	[illegible]石	[illegible]圓	[illegible]石	[illegible]圓
同四十四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正元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二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三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四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五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六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七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八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九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一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二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三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四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昭和元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二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三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四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五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六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七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八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前表와가티 輸移出이異常한發展을示하고잇는一方 米의輸移入은 明治四十三年에千四百五十石 二萬三千七百八十一圓이든것이 大正十四年으로九十二萬六千餘石 二千四百四十七萬[illegible]圓이 다음에昭和二年 昭和元年 大正十三年부터 昭和五年까지의七個年間에 四十六萬石乃至九十二萬石을輸移入하고잇다 昭和八年에는 十萬九千三百七十一石 百八十七萬五千四百二十七圓으로 이또한相當히增加하얏스나 米의輸移入은 當時의米價와 朝鮮米收穫高를보면判明된다 如斯히千八百萬石의收穫中八百五十萬石이나輸移出하면 米食人種인 朝鮮人의食料問題가擡頭하야옴은 當然하다

카-키-캠벨 (下)

‖飼養容易、早肥多産이利點‖

그러면 어제캠벨의得點이라할것은 무엇인가가 問題인데 이에는于先다음과가튼 條件을들수잇다

飼養容易

元來水禽은强健하다 캠벨도 其例에빠지지안코 至極히强健하야 育雛에도白痢、卵虫等이업다 半個月이지난鶩을 萬一죽엿다하면 그는大端히飼養法이조치못하얏기때문이다

飼養이容易하야 育成率이좃흔 肉用으로본캠벨飼養으로 말하라도 相當히有利하다

飼料는 粗雜한것도無妨하고 또粗雜한것을 조하함으로 殘飯의 整理와 雜草의退治(鷄가菜蔬를 먹음은 草中의비타민C를 攝取하든가 鐵其他의特殊成分을 攝取하는 程度로 別로 이에서 營養分을 攝取하야 食事의補助로 하지안으나 캠벨은 食餌의過半을 雜草로 補給할수잇는것으로 即草葉中에 包含된 植物蛋白質을 消化하야 卵을 動物蛋白質에 變質하는 能力이잇는것으로其消化器가 큰 [illegible] 라는 意味로 캠벨을 飼養함이조타 이意味로 農家에서 五首乃至十首를 집周圍에 放飼하고 殘物을 利用하야 産卵케하며 살지게하야 市場에서 팔도록하면 조홀것이다。

如何間 陸地에서 飼養할수잇다는것이 캠벨의特徵이다。 그런데 캠벨은 발이 헤엄치게되엿슴으로 때때로 水浴시킬이 조타고 하는이도 잇스나 그는 올흔 생각으로 캠벨은 羽毛가이미 退化하야遊泳에 不適當하게되엇슴으로외히려물에 넛치안는便이조타 三個月가량陸上에서 飼養한것은물을보이면 무서워서들어가지안는다 물에너으면몸이저저서 에넬기를 消耗함으로도 産卵能率도 떠러진다 물의準備는 水浴시키는意味로가안이고 食餌後化粧한다는意味로 必要하다 물을準備하야두지안으면鼻孔에 餌가막히여 呼吸이困難하야지고 또눈까지터러피여저서 죽는일이잇다

早肥多産

캠벨은 五個月가량이면産卵을 始作하게되다 其産卵狀況은鷄가따를수업다 三二〇―三三〇가량의것은 드물지안타 卵殼은 從來의鶩과 全然달라 白色이고 臭氣도업다 多少玻璃質光澤이잇서서 鷄卵과는달으나 一見分別할수업는程度이다 흰자우가濃厚하야 生食에는엇덜가하나大卵이고 노란자우가濃黃色임으로 料理用에는조타

캠벨의將來

캠벨이多産하고 卵이鷄卵에갓가우며 早肥性이고强健하고도殘飯、雜草等으로 飼養할수잇는點으로 採卵用으로어느程度까지養鷄家의 副業또는農家의副業으로飼養되리라고 생각된다 또雛를孵化하야 肉用으로大量肥育도될터이다

如何間早肥性과 二歲鶩의産卵低下率이 큼으로보아캠벨飼養의要點은孵化와育雛에 잇다고할수잇다 (끗)

主要工産物需給狀況 (九)

木製品

製材

▲板=生産額 百八十二萬四千二百四十九圓 輸入五十七萬二千八百八十二圓 移入五十八萬五千八百四十八圓 輸出十二萬三千六百三十四圓 移出十三萬二千三百二十三圓 需要額二百七十二萬九千三百二十二圓

▲鐵道枕木=輸入一萬八千八百十三圓 移入二萬八千九百六十一圓

▲桄木=生産額 二百十一萬七千七百八十一圓 輸入五十二萬九千三百四十八圓 移入十九萬六千五百七十圓 輸出二十五萬三千八百六十四圓 移出四萬六千二百二十四圓 需要額二百五十四萬三千九十八圓

▲其他=生産額 三百十五萬三千九百七圓 輸入九千九百六十三圓 移入三十九萬四千九百六圓 輸出九萬九千百十七圓 移出十五萬三千百二十四圓 需要額三百三十萬六千五百三十五圓

▲計=生産額 七百九萬五千九百四十七圓 輸入百十三萬一千六圓 移入百二十萬五千七百七十二圓 輸出四十七萬六千六十二圓 移出三十二萬九千三百十五圓 需要額八百七十二萬六千七百二十九圓

家具

▲建具=生産額百二萬三百七十三圓

▲洋家具=生産額七十六萬六百十五圓

▲和家具=生産額百五十七萬二千五百三十圓

▲唐木細工=生産額六萬四千六百八十三圓

▲計=生産額三百四十一萬八千二百一圓

▲包裝用木箱=生産額二十七萬二千百八十五圓

▲樽及桶=生産額二十八萬三千九百九十四圓

콜크製品

▲板=生産額二十六萬八千圓 輸入五圓

▲其他=生産額二萬五千三百四十六圓 輸入四十五圓

▲計=生産額二十九萬三千三百四十六圓

▲挽物=生産額二萬一千八百圓

▲曲物=生産額百八圓

▲其他=生産額三十六萬七千四百三十五圓 輸入九千五百九十圓 移入百八十五萬二千六百八十三圓 輸出三萬九千七百八十三圓 (輸出에는車輪及車軸材)

食料品

酒類

▲淸酒=生産額四百七十一萬九千八百四十五圓 輸入百八十五圓 移入百十六萬五百八十六圓 輸出二十五萬九千七百八十八圓 移出一萬二千八百八十三圓 需要額五百六十萬七千九百四十五圓

▲味淋=生産額一萬五千五百二十七圓 移入六萬一千二百八十二圓

▲燒酎=生産額一千二百四十五萬 二千七百九十一圓 移入五萬九千六百五十一圓 輸出二百十二圓

▲藥酎=生産額四百四十七萬八千六百三十二圓

▲濁酒=生産額二千六十六萬三千八百五十三圓 (藥酎와濁酒의輸入合計八圓) 移入十六萬八千百八十二圓

▲葡萄酒=生産額七萬八千百八十圓 輸入一萬一千三十四圓 輸出六千八百五圓

▲麥酒=輸入八百三圓 移入一百七十三萬三十一圓 輸出七萬六千六百二十五圓

▲其他=生産額三萬七千百五十三圓 輸入三萬三千三百三十六圓 移入六萬二百九十六圓 (輸移入에는 위스키、브란데를包含)

▲計=生産額四千二百四十四萬五千九百八十一圓 輸入四萬三千三百六十六圓 移入三百二十三萬九千九百六十八圓

▲醬油及酒=生産額一千二百三十萬七千七百四十二圓 移入六十萬七千四百二十六圓 輸出四萬四千百五十九圓 移入四萬五千四十七圓 (生産에는自家用朝鮮人用을包含)

▲味噌=生産額二百四十六萬九千七百二十圓 輸出一萬六千九百二圓 移出三萬三百六十八圓

▲食醋=生産額二十三萬二千二百二十七圓 輸入八百八十六圓 移入十二萬四千百九十三圓 輸出二千九百八十七圓

▲酒粕=生産額三十五萬一千六百八十三圓

淸凉飮料

▲사이다=生産額二十九萬九千二百八十一圓 輸出一萬五千九十一圓

▲라무네=生産額三萬七百三十一圓

▲시롭프=生産額五萬九千五百六十二圓

▲其他=生産額四萬七千七百二十二圓 移入三十四萬八千六百五十二圓

▲計=生産額四十三萬七千二百九十六圓

▲소-스類=生産額一萬七千五百七圓 輸入九百七十四圓 輸出四千七百十九圓

製粉

▲小麥=生産額五百十五萬七千七百七十圓 輸入八千三百六十四圓 移入三百七十六萬六千五十二圓 輸出三十七萬八千二百十二圓 移出五萬一千四百七十五圓

▲其他=生産額百十五萬二千二百六十七圓

▲計=生産額六百三十一萬三千十七圓

澱粉

▲馬鈴薯=生産額四十六萬五千二十四圓

▲甘藷=生産額一萬三千六百九十七圓

▲其他=生産額二百十八萬八千五十八圓 輸入二萬四百四圓 移入五十六萬六百十五圓 輸出一萬六千七百八十二圓 移出百六十七萬一千三百五十圓 需要額百八萬九千四十五圓 (移入中片栗粉十九萬九千五百九十一圓을包含)

▲計=生産額二百六十六萬六千七百七十九圓 輸入二萬四百四圓 移入五十六萬六百十五圓 輸出一萬六千七百八十二圓 移出百六十七萬一千三百五十圓 需要額百五十五萬九千六百六十六圓

地方産業消息

朝鮮産의黑鉛 世界各國으로輸出

【釜山】 朝鮮의産業은漸次로發達하야 海外各地에까지도朝鮮産品이進出하고잇는데 黑鉛의輸移出은 生産과販路가 가장確實된다고한다 今年에入하야 郵船歐洲航路의飛鳥丸과商船歐洲航路의鳥內丸이 아메리카輸出의黑鉛積載만 釜山에寄港케되엿다 今年에들어 아메리카外 南阿聯邦 印度 佛蘭西其外 新市場을 開拓하야 販路의獲得을본 釜山山野黑鉛鑛業所에서는 一月中에九百五十噸 二月中에 六百噸 三月中에二千八百噸을 英米獨佛 各地에輸出하엿고 지난三十一日에는다시 倫敦 華盛頓 伯林의各會社에서 大量注文 이잇서서 近近 釜山寄港의 船舶이업슴으로 門司經由急送하리라는데 이와가티 朝鮮産黑鉛이 全世界各市場에 大量輸出한것은最近에稀有한 現象이라하며 埋藏量이豐富한 黑鉛鑛은 압흐로一層海外市場搬出을 目標하고大躍進을할 意氣라한다。

平南道正租貯藏倉庫 四月에一齊工事着手

【平壤】 米穀統制法에依한正租貯藏平南道配當十一萬五千石은昨年十二月來野積法에依하여實施되여오든것은 맛츰내 新年度에 잇서서 簡易正租貯藏倉庫를道內 二十八個所에 建設하기로되여四月上旬부터 一齊히工事를開始하여 六月엔全部完成식여 雨期는 이簡易貯藏倉庫에野積正租가 收容될豫定이라한다

暴風雨지난後 (八十五)

新實當選小說 李巴村作 熊超畫

결혼식 (十九)

『들어가도 괜찬어요』

정순은 방안에 다 들어선뒤에 말햇다。

『[illegible]』

황철은 이상한 예감으로 깜짝놀래면서 누어잇든자리에서 벌떡일어낫다。

자기의 착란된 마음이 아직도 풀리지기전에 자기방으로 들어오는 정순을바라볼때 무서우면서도 반가웟다。

봄빛에나타난 정순의모양을 황은 유심히 바라보앗다。입엇든지말엇는지한 엷은 적삼을통하야 정순의 살시결이비치고 딸의 윤곽과 포동포동한 유방의곡선이 들어낫다。 그것은 정순의 육체미가 깨여질가봐 봉이도 한번 빨리지안코 보호해두엇든것이다。 봉이는 유모의젓을 빨면서 자랏다。 정순은 남의안해가되고 어머니가되지 삼년이지낫지만 그유방만은처녀시절의그대로이다。

황철은 자기의 황홀한정신을 수습하려고 마음을굿게가젓다。 할수만잇스면 마음속으로부터 정순에게대한불쾌한을 이르키며 밉게보려고햇섯다。 그러나 그것은 할래야 할수업는 현실의부인이다。 정순의 붉으스름하고 노룹한 얼골은 역시아름다웟다。 가느다란 허리시매듸와 딱 퍼진 웅덩이는 역시 고혹적이엿다。

황철은 일족이 이러케아름다운 정순을보지못햇다。 날마다보고 날마다 갓가히하는 정순이엿만 오늘밤은 한층더유혹잇고 아름다웟든것이다。

한참동안 두사람은 말이업섯다。 그리다가

『선생님!』

하고 정순은 황을불렀다。

황은 옷술 하엿다。 그것은마치 꼭꿍우룰이르키려는 우뢰소리와갓치 그의 마음을 질렷든까닭이다。

『선생님!』

정순은 재차불으면서 숨결을 급하게쉬엿다。 정순의가슴이숨결로말마암아 들먹거렷다。 그것은 하지못할말을 압헤두고 망서림때의 현상이다。

황철은 대답은못하고 꿀치가 찌르르할을알엇냐。 가슴속이 몰라올르는것가탓다。

『나를 사랑하는 며차를거절[illegible]』

악마는 또 속삭거렷다。

『나는 지금 고독하다。 내압헤는 안해자가 두손으로 안어주기를 기다리지안는냐』

그러나 그의 한편가슴속에는 시퍼런칼날가튼 위협이잇섯다

『안된다 나는 이 유혹을물리처야한다。 나는 장차 넘어갈 저 커다란고개를위하야 이 조고마한 언덕을뛰개넘어야한다。

내뒤에는 나를기다리면서수만흔사람들이 떼를기다린다 내압헤는 나를기다리면서수만흔사람들이 때를기다린다 나는 웨 이런 조고마한녀자에게 유혹한바되여 장차을 사업에 파탄을이르키려나 굿세자 유혹과싸우자!』

황철은 주먹을 불끈쥐면서떨엇다。 눈을 꽉감고 머리를 냉정케하려고 애썻다。

정순은 별안간 황철이압흐로다어안즈면서

『선생님 선생님께할말이잇슴니다。 저는 천마번생각하고 이 결심을 올리기루햇습니다。 선생님 들어주세요 네?』

『안됩니다 들을수업서요!』

하고 황은 정순의말이 무슨이야기인지 듯기도전에거절해버렷다。

『내 무슨말인지도 몰으고? 선생은 웨 그러케 저를 미워하서요!』

『미워할리가잇나요、웨 남을 미워해요、지금 밤이깁헛슴니다。 나가시요!』

황철은 눈을감엇다。

『선생님저는 고독해요』

『웨 고독해요、가정이잇고 남편과자식이잇는데』

『안입니다。 저는 선생님이 제집에 오신뒤로 처음고독을면햇서요。 남편도 벌서남이되지오랫니다。 자식? 그것은불행한 씨입니다。 가정? 호호호、우리의가정은 우연으로생긴가정임니다。 엇더한목표와의식이업는가정이예요、인형의집이랍니다。』

한참말을끈헛다가다시

『선생님 전 선생님을따러가렴니다』 하고한숨을 내쉬는다。

(訂正) 小說「暴風雨지난後」는前回와今回가바귀엿사오니 照亮하시옵

四月五日(木)부터(三日間) [illegible] 中國劇 忠義水滸誌 四幕五場 朴英鎬作 黃金座全員總出演 [illegible] 其他黃金座 [illegible] 大學笑劇 世上은 나를바보라고 全一幕 來週四月七日(土)부터 大阪每日新聞社提供 朝鮮總督府推薦 國防映畫 海의生命線 全十卷 公開 仁寺洞 電光三六一 朝鮮劇場

新興キネマ三三年度超特作 入江プロ超特級映畫 原作牧逸馬 大阪每日新聞 東京日日新聞 連載 脚色 岡田之助 撮影 青島順一郎 新しき天 大會 全二十卷 主演 入江たか子 岡田時彦 中野かほる 菅井一郎 見明凡太郎 故岡田時彦『彼の行跡!!時彦が映畫界に殘せし絢爛の足跡は素らしく大きい……顧みれば絢爛豪華と云ふより、飽迄誇張を嫌ひ常に人生の眞實を觀つめ、如何なる役柄にも、其の面影をして映畫藝術の評價を高からしめた彼、岡田時彦こそ吾人が世界に誇り得る、映畫界の大哲人として誰しもが讃辭を惜しまぬであらう 本週は 晝間午後○時四十分 夜間午後六時五十分 始映 觀覽料金 階下席 廿錢均一 當ル三日特別封切(四日間限り)『故岡田時彦君追悼の會!!』 永樂町一 中央館

四月四日부터 新舞臺春期公演第十三週 ‖特別藝題交換‖ 時代劇 사랑못하는時代 全一幕 ◇金鼓人作 ◇任曜煥作 母性悲劇 우름소래 全一幕 ◇羅龍基編 喜劇 愉快한下男 全二幕 ◇幕間 新舞踊 李貞淑 獨唱과寸劇 金小波 新登場 獨逸우파超特作全發聲日本版 神의寵兒 全十卷 吸血鬼 全十卷 授恩洞 電光九九九 團成社

四月三日(火)부터 三大喜劇週間 每日二回 낫一時 밤七時四十五分 始映 大衆料金 階上 十五錢 階下 十錢 均一 松竹키네마社超特作品 現代喜劇 戀愛印法度會社 全五卷 伊達里子主演 松竹키네마社超特作品 正喜劇 아피의白薔薇 全十卷 現代名篇 君と別れて 全七卷 水久保澄子 磯野秋雄 主演 黃金町四丁目 電光二一五 第一劇場